2003-147

2003·2004년 경제전망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동 향 분 석 실
주력기간산업실

2003·2004년 경제전망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2003·2004년 경제전망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동 향 분 석 실
주력기간산업실

2003. 11

● 총목차 ●

제 1 편 2003 · 2004년 국내경제전망

〈요 약〉 7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20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20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37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43

1. 현재의 경기상황 43
2. 부문별 경제전망 51
   (1) 개 관 51
   (2) 성 장 51
   (3) 소 비 55
   (4) 투 자 59
   (5) 수출입 62
   (6) 물 가 66

Ⅲ. 경제정책 방향 69

● 총목차 ●

제 2 편 2003 · 2004년 산업전망

Ⅰ. 개 관 79

1. 2003년 산업동향 79
2. 2004년 산업전망 87
3. 산업별 전망 요약 92

Ⅱ. 산업별 전망 101

1. 자동차산업 101
2. 조선산업 106
3. 일반기계산업 111
4. 철강산업 117
5. 석유화학산업 123
6. 섬유산업 127
7. 가전산업 133
8. 컴퓨터산업 139
9. 통신기기산업 145
10. 반도체산업 151

제 1 편

2003 · 2004년 국내경제전망

● 차례 ●

〈요 약〉 7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20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20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37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43

1. 현재의 경기상황 43
2. 부문별 경제전망 51
(1) 개 관 51
(2) 성 장 51
(3) 소 비 55
(4) 투 자 59
(5) 수출입 62
(6) 물 가 66

Ⅲ. 경제정책 방향 69

● 표차례 ●

〈표Ⅰ-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3
〈표Ⅰ-2〉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 29
〈표Ⅰ-3〉 주요 국제 금융지표(기간 평균) 30
〈표Ⅰ-4〉 향후 엔화가치 변화 요인 32
〈표Ⅰ-5〉 주요 기관들의 국제 유가 전망 36
〈표Ⅰ-6〉 시장금리 추이 38
〈표Ⅰ-7〉 향후 원화가치 변화 요인 39
〈표Ⅰ-8〉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 추이(기말) 40
〈표Ⅱ-1〉 실물경제 주요지표 44
〈표Ⅱ-2〉 산업 생산 추이 46
〈표Ⅱ-3〉 생산자 출하 추이 47
〈표Ⅱ-4〉 제조업 가동률 지수 48
〈표Ⅱ-5〉 수출입 추이 49
〈표Ⅱ-6〉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50
〈표Ⅱ-7〉 2003·2004년 국내경제 전망 51
〈표Ⅱ-8〉 2004년 성장 전망의 고려 요인 53
〈표Ⅱ-9〉 도소매 판매액의 최근 추이 55
〈표Ⅱ-10〉 내수용 소비재의 최근 추이 57
〈표Ⅱ-11〉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평가지수 추이 57
〈표Ⅱ-12〉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 58
〈표Ⅱ-13〉 2004년 투자 전망의 고려 요인 60
〈표Ⅱ-14〉 최근 설비투자 및 기계수주액 증감률 추이 60
〈표Ⅱ-15〉 최근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액 증감률 추이 61
〈표Ⅱ-16〉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64
〈표Ⅱ-17〉 소비자물가 동향 67
〈표Ⅱ-18〉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요인 67

● 그림차례 ●

〈그림Ⅰ-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21
〈그림Ⅰ-2〉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22
〈그림Ⅰ-3〉 1999년 이후 국제 원유가 추이 33
〈그림Ⅰ-4〉 CRB 국제상품가격지수와 품목별 추이 37
〈그림Ⅱ-1〉 최근 수출입 추이 66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 회복세가 가속화

○ 2003년 들어 이라크 전쟁 등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던 세계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유지와 감세 등 정책적 기반도 회복세를 지지해 주고 있어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 세계경제는 2003년 중 3%대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2년 이후의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에는 성장률이 추세선에 근접하는 4%대로 높아지며 회복세가 점차 가속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세계교역은 지난해 3%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 들어 이라크 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연간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며, 세계경제 회복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2004년에는 5%대 이상의 증가율이 예상됨.

□ 국제금융 : 2004년, 저금리 기조 탈피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의 가시화로 2003년 11월 들어 각국이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노동시장의 안정 속에 2003년 말부터 경기지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유로권에서도 미약하나마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미국과 유럽 모두 2004년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음.

○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와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강한 달러정책의 완화로 점차 약세를 보일 것임.

○ 엔/달러 평균환율은 2003년 10월 말 현재 109.78엔으로 2002년 말 대비 약 12.3% 절상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에는 소폭 더 절상되는 추이를 보여 연평균 108엔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및 국제상품가격 : 추가 상승의 강도는 약해질 전망

○ 국제유가는 이라크 전쟁의 종결 이후에도 배럴당 25달러를 상회하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처럼 유가의 하락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① 원유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②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속력 강화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국제유가의 향방은 위의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세계경제

의 회복 속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3년에 급등세를 초래한 이라크 전쟁의 영향이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4년 평균 유가는 2003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한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까지 반영하며 국제상품가격이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의 강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 금 리 : 200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오름세

○ 2003년 들어 현재까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국내 금리가 하락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생산과 가동률이 회복세를 보여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 국내의 수출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2004년 상반기에는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 탄력을 받게 되고 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임.

□ 원화 환율 : 하락 가능성

○ 최근의 외국인 주식투자에 따른 달러 공급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2004년에도 미국의 경기회복이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에 의해 다소 제약될 것으로 보여 원화 환율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중 연평균 1,120원 내외를 기록하여 2003년 연평균 환율(예상) 1,190원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소비 및 투자의 부진으로 국내 경기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고 국제 금리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기 하락세가 진정되어 금리 수준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주요 非경제적 요인의 변화

○ 노사분규의 지속 여부

– 2003년에 국내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노동시장의 불안은 2004년에도 4월의 총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 정치불안 및 총선의 실시

– 2003년 중 지속적으로 정치개혁 움직임,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국내정치 상황은, 2004년에도 4월의 총선을 전후하여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속 및 해외투자 확대 추세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나 해외투자 확대 추세는 200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고용시장에 불안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주5일 근무제 실시

- 주5일 근무제가 대기업에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를 통해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고용시장에는 취업기회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

-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한편으로는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1. 현재의 경기상황

□ 경기개관 : 전반적인 부진 속에 "경기 양극화" 현상

○ 2003년 들어서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국내 실물경제는 2003년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들 사이에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소비 및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 및 건설투자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

□ 산업생산 : 수출관련 업종의 호조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

○ 2003년 2분기 이후 부진한 양상을 보여 오던 산업생산의 경우에도 9월부터는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어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그 가운데서도 중화학공업과 ICT 제조업의 증가세는 2003년 내내 비교적 빠른 양상을 보인 반면, 경공업의 경우 생산감소 추세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등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산업별로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통신, 조선, 철강, 화학 등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섬유, 컴퓨터 및 정밀기기 등의 산업들은 생산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출하의 경우에도 수출은 호조 내수는 부진**

○ 생산자 출하의 경우에도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호조 업종을 중심으로 출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9월의 회복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내수 출하는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수출입 : 수출 호조 추세, 연말로 다가갈수록 가속화**

○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수출 호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 호조 추세는 연말로 다가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2003년 중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의 활황이 이러한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수출증가세는 지금까지는 부진한 국내경기를 견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양상을 보였지만, 그 증가세가 더욱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더욱이 증가세가 연말이

다가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전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부문별 경제전망

□ 성장 : 2003년 3.0%에 그치나, 2004년에는 5.5%로 회복 전망

○ 2003년 실질GDP는 상반기에 2.8% 성장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2%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간으로는 2002년보다 크게 둔화된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에는 건설투자는 둔화될 것이나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인 데다 2003년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강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003년보다 훨씬 높은 5.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지출 : 2004년에는 완만한 회복 전망

○ 민간소비지출은 2003년 상반기에 0.7% 감소하였으며, 7월 이후에도 소비자평가지수가 계속 하락한 데 이어 소비재 출하도 감소 추이를 보임에 따라 2003년 민간소비는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중에 소비는 상반기 내수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상반기 2.3%), 하반기 이후

부터 국내외 경기 회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반기 6.2%)되어, 2004년 연간 전체로는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투 자

○ 소비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침체로 고정투자는 2003년에 3.5%의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2004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6.0%의 증가가 예상됨.

○ 설비투자는 국내소비수요의 침체로 2003년에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됨. 회복세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2004년 연간으로 9%대 후반의 증가가 예상됨.

○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호조 등으로 2003년에 7.0%의 비교적 높은 증가가 예상되나, 2004년에는 2003년의 높은 투자증가에 따른 반락효과와 최근의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임. 2004년 연간 전체로 3.1%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

□ **수출입 : 수출호조 지속으로 무역흑자 2003년 138억 달러, 2004년 127억 달러 전망**

○ 2003년 무역흑자(수출입차)는 수출이 대중국 수출 급증과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기회복,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함으로써 흑자규모가 2002년보다 대폭 늘어난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기회복 등 수출여건의 개선으로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규모가 127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3년 3.4%, 2004년 2.9% 전망**

○ 2003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소비자물가는 2003년에 비해 3%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 하반기 이후 2004년에 들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압력 요인이 있겠으나, 실제 경기회복세가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임.

Ⅲ. 경제정책방향

○ 2003년 중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과 소비 및 설비투자의 부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수출과 건설투자의 상대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2002년의 6.3%에 크게 못 미치는 3%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03년 내내 지속되어 온 호조 부문과 부진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진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렵게 만들어 왔음.

○ 2004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더 많은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및 소비의 회복 추세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경제는 5.5%라는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거시경제 전체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그 성장세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불과하므로 금리 인상 등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오랜 부진을 거친 후의 성장세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지금까지 문제되어 온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다소 완화된 형태로나마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도 크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4년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안정적인 성장 유지정책"으로 가져가되, 많은 분야에서 미시적인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첫째, 수출관련 산업의 호조를 내수관련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둘째, 청년실업 등의 실업현안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셋째,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임.
- 넷째, 수출 호조 및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 증대 등으로 야기될 원화 절상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다섯째, 총선 실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움직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003 · 200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2	2003			2004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성장률	6.3	2.8	3.2	3.0	4.6	6.4	5.5
민간소비	6.8	-0.7	-1.2	-1.0	2.3	6.2	4.3
총고정자본형성	4.8	4.1	2.6	3.3	5.6	6.3	6.0
(설비투자)	6.8	0.4	-2.9	-1.2	8.4	11.3	9.8
(건설투자)	3.3	7.6	6.5	7.0	3.2	3.0	3.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4.9	13.6	15.0	14.3	10.9	12.0	11.5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6.4	12.6	11.5	12.0	13.9	16.4	15.3
통관기준 수출입							
수 출(억 달러)	1,625	891	1,028	1,919	1,023	1,131	2,154
(증가율)	(8.0)	(17.4)	(18.8)	(18.1)	(14.8)	(10.0)	(12.2)
수 입(억 달러)	1,521	859	922	1,781	963	1,064	2,027
(증가율)	(7.8)	(21.0)	(13.7)	(17.1)	(12.1)	(15.4)	(13.8)
수출입차(억 달러)	103	32	106	138	60	67	127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03년 들어 이라크 전쟁, 아시아 지역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던 세계경제가 당초 우려와 달리 이들 충격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면서 안정과 회복세를 되찾아가고 있음.

- 연초만 하더라도 이라크 전쟁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데다, 아시아 지역의 사스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면서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음.

-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단기에 종결되고, 사스도 소멸 조짐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이들 충격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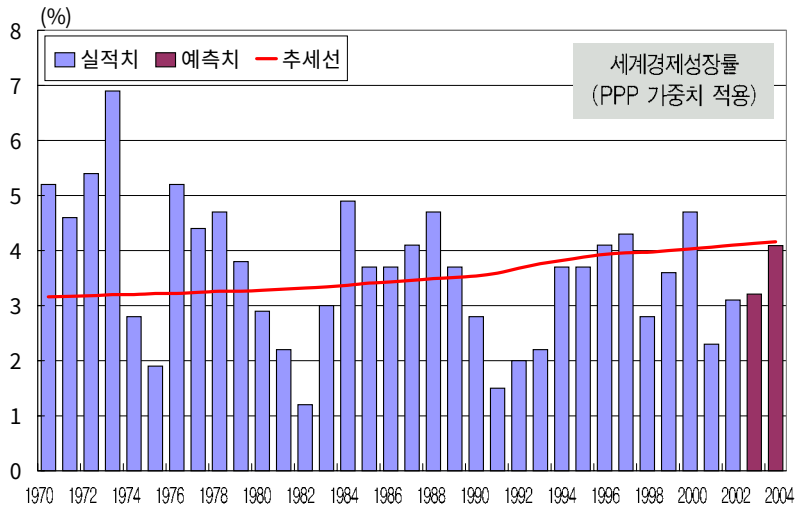
- 선진국 가운데 가장 뒤늦게 침체기를 맞았던 유로권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다, 중국은 8~9%대의 고도 성장을 이어가며 개도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임.

○ 세계경제는 2003년 중 3%대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2년 이후의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에는 성장률이 추세선에 근접하는 4%대로 높아지며 회복세가 가속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주된 배경은 ① 불확실성의 완화, ②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그림 Ⅰ-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 IMF.

의 안정세 회복, ③ 정책적 기반의 뒷받침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며 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그 동안에 더딘 회복세를 보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의 완화는 회복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국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충격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유지 등 정책적 기반의 뒷받침은 회복세 지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OECD 국가들의 경기선

<그림 Ⅰ-2>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 OECD.

행지수가 하반기 들어 급상승세로 반전된 모습은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음.

○ 미국경제는 2002년 4분기~2003년 1분기 동안 부진한 실적을 보인 소비와 투자가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8.2%(전기비 연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2				2003				2004			
	IMF	WB	EIU	WEFA	IMF	WB	EIU	WEFA	IMF	WB	EIU	WEFA
전세계[1]	3.0	3.0	2.9	2.0	3.2	3.1	3.3	2.2	4.1	3.9	3.9	3.3
OECD	1.8	1.6	1.8	-	1.8	1.5	1.8	-	2.9	2.5	2.4	-
(미 국)	2.4				2.6	2.2	2.6	2.6	3.9	3.4	3.4	4.1
(일 본)	0.2				2.0	0.8	2.6	2.0	1.4	1.3	1.6	1.7
(유 로)	0.8				0.5	0.7	0.4	0.5	1.9	1.7	1.8	1.6
아시아[2]	6.4	6.7	5.3	5.7	6.4	6.1	4.8	5.1	6.5	6.7	5.9	6.0
(중 국)	8.0				7.5	-	8.0	7.5	7.5	-	8.2	7.4
체제전환국[3]	4.2	4.6	-	3.9	4.9	4.3	-	4.6	4.7	4.5	-	4.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3. 9.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3. 9.
EIU, *Viewswire*, 2003. 10.
DRI-WEFA, *World Overview*, 2003. 10.

주 : 1) DRI-WEFA는 시장환율을 적용한 기준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PPP 기준.
2) EIU와 DRI-WEFA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대상 지역.
3) WB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DRI-WEFA는 신흥 동구 유럽이 대상 지역.

- 소비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 2001년 경기침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감소를 면할 수 있었으나, 2002년 4분기와 2003년 1분기에 이라크 전쟁 가능성 영향으로 그 증가율이 1~2%대까지 떨어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

-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2000년 4분기~2002년 1분기 동안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02년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6%대까지 높아졌으나, 2003년 1분기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침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음.

- 이처럼 소비와 투자가 2002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률도 사실상 1%대에 머물렀으나, 2003년 2분기부터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3%대로 높아졌고, 3분기 성장률은 8.2%로서 1984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이 밖에 주택투자는 2002년 3.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로 2003년 1분기와 3분기에 각각 10.1%와 22.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 역할을 담당함.

○ 2003년 3분기 성장률의 호조를 반영하여 2003년 성장률은 2002년(2.4%)에 비해 다소 높아질 전망이며, 고용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2004년에는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

로 확산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3.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도 지난 11월까지 5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

- 소비와 투자가 3분기 중에 기록한 높은 증가율(전기비 연율 기준 각각 6.4%와 18.4%)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더라도, 일부에 한정된 호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문임.

  · 소비의 경우 내구재 소비의 기록적인 증가율(2분기와 3분기 모두 20%대)과 더불어 비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의 증가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투자도 IT 투자의 회복과 더불어 산업장비, 운송장비 등 비IT 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향후 전망에 있어 주요 관건은 실업률이 아직도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처럼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고용 여건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9월 이후 40만건 이하에서 하락세를 지

속하고 있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9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문임.

- 다만,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주택 경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는 디플레 지속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수 여건의 개선이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성장률은 2001년과 2002년 0%대에 그친 이후 2003년 들어서도 1분기 중 0.4%에 불과했지만, 2분기에는 0.6%로 다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3.9%(전기비 기준, 2000년 4분기 이후 최고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성장에 크게 기여(0.6% 포인트)했기 때문임.

- 또한 민간소비가 지난 2001~2002년 동안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도 지난 2002년에 8.0%나 증가한 것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2분기와 3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감안하는 경우 2003년 연간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의 투자 회복이 소비 및 고용 여건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2004년에도 1%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일본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단관지수가 2003년 3분기에 200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음.

- 실업률이 지난 5~6월 5.4%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앞으로 고용 시장이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소득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유로경제는 2003년 2분기 성장률이 -0.1%(전기비 기준)까지 떨어지는 등 미국이나 일본경제와 대조적으로 성장세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뒤늦게 침체기를 맞았던 유로경제는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함에 따라 부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단일통화체제 출범(1999년) 이후에도 회원국들간의 상이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일률적인 정책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게 되었음.

- 유럽중앙은행(ECB)이 뒤늦게 금리인하에 나서고 독일 정부도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안을 마련함으로써 극심한 경기침체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경기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임.

○ 실물지표들이 미미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2003년 유로권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의 0.8%에 비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실물지표들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되는 2004년에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반영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다만, 각종 실물지표들의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체감지표들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향후 유로권의 실물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세계 교역**

○ 지난해 3%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 세계교역은 2003년 들어서 이

<표Ⅰ-2>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

단위 : %

	2002			2003			2004		
	IMF	WB	EIU	IMF	WB	EIU	IMF	WB	EIU
전세계 교역	3.2	3.0	3.1	2.9	4.6	3.4	5.5	7.9	5.3
선진국 수입	2.2	1.7	1.6	2.8	4.1	1.8	4.8	6.3	4.4
개도국 수출	6.5	7.7	7.5	4.3	10.0	7.8	6.9	10.9	7.6

라크 전쟁, 아시아 지역의 사스 확산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연간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며, 세계경제 회복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2004년에는 5%대 이상의 증가율이 예상됨.

□ 국제금융

○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각국이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부터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해온 미국은 지난 10월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2003년 11월 들어 영국의 영란은행(BOE), 호주 중앙은행 등이 자국의 경기 속도 조정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은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그린스펀 의장은 최근의 경기회복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존 스노 미 재무장관

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증하는 고용 증가가 수반되는 전제 하에서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미국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2003년 10월 말 현재 2002년 말 대비 17.5% 상승하였고, 나스닥 주가지수도 동기간 중 44.6%나 상승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 10년 만기 미국 재무성 채권의 경우 6월 말 이후 0.78% 포인트 급등하였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경기회복이 실제화되고 있음을 보임.

○ 그러나, 11월 들어 미국 노동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지표도 향후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유로권에서도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미약하나마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2004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표 Ⅰ-3〉 **주요 국제 금융지표**(기간 평균)

		2002년 말	2003. 6	2003. 7	2003. 8	2003. 9	2003. 10
미국	DJIA	8,342	8,985	9,234	9,416	9,275	9,801
	Nasdaq	1,336	1,623	1,735	1,810	1,787	1,932
	금리(10년)	3.81	3.52	4.40	4.45	3.94	4.30
일본	NIKKEI	8,579	9,083	9,563	10,344	10,219	10,560
	금리(10년)	0.91	0.85	0.95	1.46	1.39	1.44
엔/달러 평균환율		125.14	118.29	118.61	118.59	115.02	109.78
달러/유로 평균환율		0.946	1.167	1.137	1.115	1.126	1.172

자료 : 한국은행.

○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2004년에도 지속되고 이에 따라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임.

- 최근 들어서는 대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 2003년 이후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아시아 통화 강세가 필요하여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임.

○ 2002년 말 125.14엔이던 엔/달러 평균환율은 2003년 10월 말 현재 109.78엔으로 약 12.3% 절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막 벗어나려는 시기여서 디플레이션 우려, 금융부실채권 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 하지만, 달러화 약세 기조에는 역부족임.

-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일본의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재연된다면 엔화가 단기간 약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음.

○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엔/달러 평균환율은 2004년에 연평균 108엔을 기록하여 2003년 중 예상치인 연평균 116엔을 상당히 하회할 것으로 보임.

〈표 Ⅰ-4〉 향후 엔화가치 변화 요인

엔화 약세 요인	엔화 강세 요인
·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엔화 약세 유도) · 미국의 경기회복 가시화	· 일본의 경기회복 ·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후유증 · 미국의 강한 달러화 정책 완화 · 미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쌍둥이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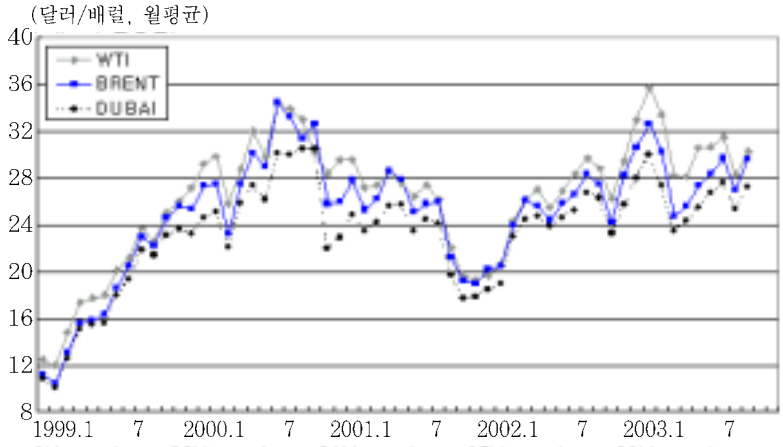
□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 국제유가는 이라크 전쟁의 종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003년 하반기 들어서도 배럴당 25달러를 상회하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유종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월평균 기준으로 미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와 브렌트유(Brent), 그리고 두바이유(Dubai)는 이라크전을 앞둔 2003년 2월 연중 최고치(각각 35달러, 33달러, 30달러)를 기록한 이래로 4~5월에 일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11월 현재 각각 30달러, 29달러, 27달러를 기록중에 있음.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 걸프전 당시와 비교해 보면, WTI 가격 기준으로 1990년 10월 36달러대에서 1991년 3월 19달러 수준까지 5개월 만에 무려 44.9%나 하락한 반면에, 2003년 2~10월의 8개월 동안은 15% 하락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Ⅰ-3> 1999년 이후 국제 원유가 추이



자료 : Reuter.

○ 이라크 전쟁의 종결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하락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① 원유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②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속력 강화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우선 원유수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 배경으로는 이라크의 원유생산 중단(2003년 4~5월), 베네수엘라 석유노조 파업(2002년 12월~2003년 1월), 나이지리아 종족분쟁(2003년 3월)과 석유노조 파업(2003년 6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을 거론할 수 있음.

·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전쟁이 개시되기 전만 해도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개전 2개월 만에

3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전쟁의 영향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

·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는 유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양국이 2003년 9월 현재 산유량(IEA 발표 기준)이 생산능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시설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베네수엘라 : 9월 223만 배럴/일 생산
(생산능력 235만 배럴/일)

* 나이지리아 : 9월 214만 배럴/일 생산
(생산능력 250만 배럴/일)

· 또한 미국의 원유재고도 이라크 전쟁의 영향과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의 파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03년 상반기 중에 급격히 감소함.

* 미국의 상업용 원유재고는 2002년 평균 3억 700만 배럴 수준에서 2003년(1~7월) 평균 2억 8,000만 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음.

○ OPEC이 산유량 정책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도 유가의 급락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OPEC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지난 2월과 4월 총회에

서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산을 결정한 바 있지만, 실제 산유량은 당초 약정된 생산쿼터에 대체로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국들의 결속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 특히 OPEC은 바스켓 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22~28달러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가밴드제'를 채택(2000년 3월)한 이래 유가의 변동범위를 제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제유가의 향방은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03년에 급등세를 초래한 이라크 전쟁의 영향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4년 평균 유가는 2003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는 9월 현재 145만 배럴/일의 산유량을 기록하면서 생산능력(280만 배럴/일)의 절반 수준을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석유산업 복구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04년 4월 이후에는 180만 배럴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OPEC은 지난 9월 총회에서 유가 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감산을 결정한 바 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러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비회원국들의 산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표 Ⅰ-5〉 주요 기관들의 국제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IMF		세계은행		EIU		EIA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국제 유가	28.50	25.50	26.50	22.00	27.64	19.61	30.73	2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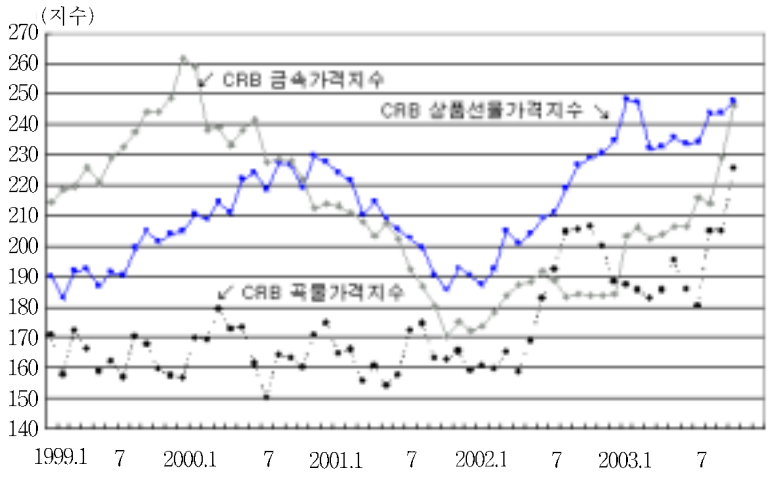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3. 4.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3. 4.
EIU, *Viewswire*, 2003. 5.
DOE, *EIA/Short-Term Energy Outlook*, 2003. 11.
주 : IMF와 세계은행은 3대 유종 가중평균값이고, EIU는 Brent유, EIA는 WTI유 기준.

하면 OPEC이 2004년 중 점진적인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지난해 세계경제의 회복과 유가 급등의 여파로 연중 상승세를 지속한 국제상품가격은 2003년 들어서 1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하락세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금속가격과 곡물가격의 급등세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경제가 충격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난 데다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까지 반영하며 국제상품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의 강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림Ⅰ-4> CRB 국제상품가격지수와 품목별 추이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 금 리

○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으로써 국내 금리는 하락추세를 보여왔음.

- 2003년 10월 말 현재 콜금리 3.74%, 3개월 만기 CD 수익률 3.93%,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5.18%,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4.28%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국고채 금리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2001년 말

〈표 Ⅰ-6〉 시장금리 추이

	2002. 12	2003. 6	2003. 7	2003. 8	2003. 9	2003. 10
콜(1일)	4.30	4.00	3.81	3.73	3.73	3.74
CD(91일)	4.90	4.28	4.15	3.90	3.83	3.93
회사채(3년)	5.88	5.28	5.65	5.87	5.24	5.18
국고채(3년)	5.28	4.07	4.37	4.62	4.25	4.28

자료 : 한국은행.

5.91%이었던 것이 2002년 말에는 5.28%,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부진과 원화절상 압력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2003년 10월 말 현재 4.28%까지 하락함.

○ 여전히 지속적인 소비침체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는 있으나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생산과 가동률이 회복세를 보여 2004년 상반기에는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국내의 수출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2004년에는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의 탄력을 받게 되어 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03년도 연간 회사채 금리는 5% 중반, 국고채는 4% 중반, 그리고 2004년에는 각각 6% 가까운 수준,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원화 환율

○ 2002년 말 1,200원 수준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1,150원과 1,250원 사이를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기말)은 2003년 10월 말 현재 1,177원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은 2003년 들어 3월 말(1,252.9원) 이후 하락세를 보여오다 9월 열린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아시아 환율절상 압력'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된 데 따라 1,150원대 초반으로 급락하였음.

- 현재 국내 경기의 회복이 점쳐짐에 따라 향후 원화가치는 내수 및 투자 부진에 따른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화 약세에 의한 원화 강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04년에도 북한 핵 문제는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외국인

〈표Ⅰ-7〉 향후 원화가치 변화 요인

원화 절상 요인	원화 절하 요인
· 외국인 주식투자에 따른 달러 공급 증가 · 경상수지 흑자 ·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와 강한 달러화 정책 완화로 달러화 약세	· 소비침체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 북한 핵문제

〈표 Ⅰ-8〉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 추이(기말)

	2002	2003.6	2003.7	2003.8	2003.9	2003.10	2002년 대비(%)
원/달러 환율	1,200.4	1,193.1	1,180.2	1,179.9	1,150.2	1,177.3	-1.92
원/100엔 환율	1,012.9	996.4	980.9	1,005.3	1,028.9	1,083.5	6.97
엔/달러 환율	118.74	119.73	120.51	116.89	110.43	108.42	-8.69
달러/유로 환율	1.050	1.151	1.123	1.098	1.166	1.181	12.48

자료 : 한국은행.

주식투자에 따른 달러 공급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엔화강세, 그리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에 의해 제약될 것으로 보여 원화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중 연평균 1,120원 내외를 기록하여 2003년 연평균 환율(예상) 1,190원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주요 非경제적 요인의 변화**

○ 노사분규의 지속 여부

- 2003년 중 경기회복을 가로막아 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극심한 노사분규가 지속된 점임. 이러한 노사분규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7월과 8월의 자동차 분규는 직접적인 수출 감소에도 영향을 주었고 경제 전반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2004년에도 4월의 총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치불안 및 총선의 실시

- 2003년 중 국내 정치구도는 여소 야대가 지속되어 왔고, 정치개혁의 거센 소용돌이가 몰아침으로써 정치적 불안감이 조성되어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음.

- 특히 정치자금 문제와 연계하여 대기업의 총수들이 수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기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2004년에도 4월의 총선을 전후하여 정치적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속 및 해외투자 확대 추세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주요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추세 역시 국내 고용시장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나 해외투자 확대 추세는 200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고용시장에 불안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주5일 근무제 실시

- 주5일 근무제가 대기업에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가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고용시장에는 취업기회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

- 2003년 하반기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이 크게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1. 현재의 경기상황

□ 경기개관 : 전반적인 부진 속에 "경기 양극화" 현상

○ 2003년 들어서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국내 실물경제는 2003년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경제지표들 사이에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경제지표들의 뚜렷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GDP의 60%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와 경제 회복의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할 설비투자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 움직임에 힘입어 수출의 호조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생산 관련 지표들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설비투자 및 소비 등의 내수 관련 분야로도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산업연구원이 9월 중에 실시한 3분기 경기실사 결과는 기업들이 4분기 회복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분기 이후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1)]

○ 국내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구소비재 출하를 비롯한 소비관련 지표들이 계속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업 활동도 매우 저조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임.

〈표Ⅱ-1〉 실물경제 주요지표

	2002			2003					
	연간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GDP성장률	6.3	5.8	6.8	3.7	1.9	2.3			
민간소비(국민계정)	6.8	6.2	4.3	0.7	-2.2	-1.9			
내수소비재출하	8.3	4.4	9.5	-1.6	-7.4	-6.4	-3.6	-9.4	-6.2
설비투자(국민계정)	6.8	7.8	8.2	1.6	-0.8	-4.7			
설비투자추계	1.6	0.4	3.1	-3.4	-3.7	-7.0	-11.0	-7.8	-2.3
건설투자(국민계정)	3.3	-4.6	6.0	8.1	7.2	7.8			
건설기성액	3.7	-2.8	8.0	16.0	15.8	17.8	18.5	21.9	13.2
산업생산지수	8.0	6.9	11.5	6.1	3.0	2.9	0.7	1.5	6.6
출하지수	7.9	6.3	11.0	4.8	2.8	2.5	1.4	1.2	5.1
재고지수	-0.4	-3.3	-0.4	10.1	9.9	9.2	9.2	8.7	9.2
제조업 가동률	78.3	78.4	78.8	78.6	77.2	76.3	73.8	76.5	78.7
수출증가율	8.0	15.9	24.6	20.7	14.4	16.3	15.3	10.3	23.4
수입증가율	7.8	13.8	23.1	30.9	12.1	21.0	14.0	5.1	11.9
무역수지(억 달러)	103	24	30	-12	44	32	6	19	2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KOTIS.
주 : 제조업 가동률 이외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 KIET 최신 자료 '제조업 업종별 및 지역별 경기실사 결과 - 3/4분기 현황과 4/4분기 전망' 참조.

-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체적으로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경기의 빠른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수출, 건설투자 등의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도 7, 8월의 부진한 양상을 벗어나 9월에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적어도 수출과 관련한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아울러 부진한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기계수주 움직임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설비투자 부진 양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임.[2)]

○ 결국, 수출 및 건설과 관련한 산업들의 호조가 부진에 빠져 있는 내수와 관련한 산업 특히 서비스업들의 경기회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가가 향후 경기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관건이라 할 것임.

□ **산업생산 : 수출관련 업종의 호조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

○ 2003년 2분기 이후 부진한 양상을 보여 오던 산업생산의 경우에도 9월부터는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어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2) 이상연, 「투자의 양극화 현상과 시사점」(e-Kiet 산업경제정보 제167호), 산업연구원, 2003. 11. 12 참조.

- 그 가운데서도 중화학공업은 전반적인 산업생산의 회복 속도보다 두 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경공업의 경우 생산감소 추세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등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이 부진한 양상을 보인 2분기 이후의 기간에도 ICT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빠른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제조업 내에서도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Ⅱ-2> **산업 생산 추이**

단위 : 2000=100, 전년 동기비 %

	2002			2003					
	연간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산업생산지수	108.8	106.4	116.4	110.0	112.4	109.3	108.0	108.1	111.9
증 감 률	8.0	6.9	11.5	6.1	3.0	2.9	0.7	1.5	6.6
전 기 비	-	1.5	2.2	0.3	-0.4	1.0	-3.8	3.4	2.9
제 조 업	108.5	106.2	115.8	108.5	112.4	109.3	107.8	107.8	112.3
증 감 률	8.3	7.2	11.3	5.8	2.9	2.8	0.8	1.3	6.7
섬 유	-6.1	-8.3	-2.9	-10.2	-12.8	-12.3	-12.1	-13.0	-11.7
화 학	6.3	6.1	7.1	3.3	1.0	5.1	4.4	5.6	5.4
철 강	3.8	3.1	6.0	6.0	6.8	5.5	4.2	6.3	6.1
기계 및 장비	7.8	5.4	16.1	9.8	1.7	0.8	3.5	-4.6	3.4
컴퓨터	10.7	11.6	2.4	-7.6	-7.9	-11.4	-4.8	-8.5	-19.7
반도체	31.9	44.1	38.1	22.8	16.1	30.3	25.5	28.1	37.3
통 신	23.7	21.5	22.6	5.7	10.8	16.8	5.4	20.2	24.5
정밀기기	-0.7	0.8	-4.6	8.2	4.0	-8.6	-8.3	-8.0	-9.3
자동차	8.5	1.5	20.5	14.3	10.8	-12.3	-30.3	-20.1	13.3
조 선	1.0	-4.0	-3.1	11.8	11.9	8.3	5.1	13.5	6.9
전 기 비	-	1.5	1.9	0.4	-0.4	1.1	-3.8	3.5	2.8
중화학공업	10.3	9.7	14.2	8.9	5.8	5.7	2.8	3.7	10.8
경 공 업	1.9	-0.2	2.7	-3.9	-6.5	-6.0	-5.6	-6.1	-6.3
제조업ICT	23.9	28.2	28.5	11.7	9.8	18.3	14.6	17.7	22.2

자료 : 통계청.

○ 주요 산업별로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통신, 조선, 철강, 화학 등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섬유, 컴퓨터 및 정밀기기 등의 산업들은 생산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7, 8월 중 노사분규에 빠져든 자동차산업이 잠시 생산 증가세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9월부터는 다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출하의 경우에도 수출은 호조 내수는 부진**

○ 생산자 출하의 경우에도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호조 업종을 중심으로 출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9월의 회복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내수 출하는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생산 및 출하의 회복 추세를 반영하여 한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제조업의 가동률 지수도 9월 들어서는 2002년 4분기의 수준을 회복하여 향후 경기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표Ⅱ-3> **생산자 출하 추이**

단위 : 2000=100, 전년 동기비 %

	2002			2003					
	연간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생산자 출하지수	109.3	106.2	116.5	109.9	112.7	108.9	107.0	107.3	112.5
증 감 률	7.9	6.3	11.0	4.8	2.8	2.5	1.4	1.2	5.1
내 수	8.1	4.7	10.2	3.2	-0.8	-2.2	-3.3	-3.3	0.2
수 출	7.7	9.5	12.7	7.7	10.4	11.6	10.7	10.1	14.3
전 기 비	-	1.2	2.7	-0.5	0.0	0.4	-4.0	3.0	3.1

자료 : 통계청.

〈표Ⅱ-4〉 제조업 가동률 지수

단위 : 2000=100, 전년 동기비 %

		2002			2003					
		연간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가동률 지수	평균 가동률	78.3	78.4	78.8	78.6	77.2	76.3	73.8	76.5	78.7
	원지수	99.7	97.5	102.9	97.1	100.8	94.8	93.8	93.7	97.0
	증감률	4.0	3.0	7.5	1.1	-1.7	-2.8	-5.2	-4.3	1.3
	전기비	-	0.3	0.5	-0.2	-1.9	-1.1	-5.2	3.6	3.0
생산능력 지수	원지수	106.3	106.6	107.7	108.5	109.4	109.3	109.2	109.3	109.3
	증감률	2.7	2.3	2.8	3.3	3.2	2.5	2.5	2.5	2.4
	전기비	-	0.6	1.0	0.7	0.8	-0.1	0.0	0.1	0.0

자료 : 통계청.

□ 수출입 : 수출 호조 추세, 연말로 다가갈수록 가속화

○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수출 호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 호조 추세는 연말로 다가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2003년 중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의 활황이 이러한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03년 10월에는 수출이 처음으로 월간 실적 19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2003년 10월까지 무역흑자(통관기준) 규모도 108억 달러에 이르러

<표Ⅱ-5>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02			2003						
	연간	3/4	4/4	1/4	2/4	3/4	8	9	10	1~10
수 출	1,625	413	453	430	461	480	154	172	190	1,561
	(8.0)	(15.9)	(24.6)	(20.7)	(14.4)	(16.3)	(10.3)	(23.4)	(26.2)	(18.1)
수 입	1,521	389	423	442	417	429	135	145	165	1,453
	(7.8)	(13.8)	(23.1)	(30.9)	(12.1)	(10.4)	(5.1)	(11.9)	(19.6)	(17.5)
무역수지	103	24	30	-12	44	51	19	26	25	108

자료 : KOTIS.
주 : (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작년 연간 흑자규모를 초과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들 중에서 섬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호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산업들은 무선통신기기,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임.

- 2003년 2분기까지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의 산업의 경우에도 9월에는 수출이 20%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호조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7, 8월 노사분규로 잠시 주춤하였던 자동차의 수출도 동기간을 제외하면 30~40% 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에 지난 2분기까지 20% 전후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선박의 수출은 2002년 3분기의 호조에 따른 반락으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수출증가세는 지금까지는 부진한 국내경기를 견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양상을 보였지만, 그 증가세가 더욱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더욱이 증가세가 연말이 다가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전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Ⅱ-6〉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

	2002			2003						
	연간	3/4	4/4	1/4	2/4	3/4	7	8	9	1~9
반도체	16.6	53.6	57.7	9.7	3.4	24.2	15.1	18.9	39.2	12.7
자동차	10.9	5.1	32.2	23.3	46.6	4.9	-16.6	-8.5	39.2	24.2
무선통신기기	38.2	35.7	41.4	48.3	33.1	43.4	53.5	43.4	35.7	41.4
컴퓨터	15.1	26.7	7.3	0.8	0.2	24.7	20.2	23.7	30.2	8.5
선 박	9.7	42.3	37.3	16.6	27.1	12.5	37.8	6.3	3.9	19.1
가 전	11.0	10.1	19.5	15.1	5.9	14.2	12.4	9.7	20.1	11.6
철 강	2.0	8.3	25.3	37.0	27.1	28.9	32.5	23.8	30.2	30.5
석유화학	10.4	14.2	35.2	34.8	23.6	25.0	24.7	26.1	24.4	27.5
일반기계	10.4	26.6	32.9	30.9	21.2	20.6	20.9	1.7	42.6	23.5
섬유류	-2.5	-0.8	11.9	1.5	-4.9	-4.6	-2.9	-9.6	-1.1	-3.1

자료 : KOTIS.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부문별 경제전망

(1) 개 관

<표Ⅱ-7> 2003 · 200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2	2003			2004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성장률	6.3	2.8	3.2	3.0	4.6	6.4	5.5
민간소비	6.8	-0.7	-1.2	-1.0	2.3	6.2	4.3
총고정자본형성	4.8	4.1	2.6	3.3	5.6	6.3	6.0
(설비투자)	6.8	0.4	-2.9	-1.2	8.4	11.3	9.8
(건설투자)	3.3	7.6	6.5	7.0	3.2	3.0	3.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4.9	13.6	15.0	14.3	10.9	12.0	11.5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6.4	12.6	11.5	12.0	13.9	16.4	15.3
통관기준 수출입							
수 출(억 달러)	1,625	891	1,028	1,919	1,023	1,131	2,154
(증가율)	(8.0)	(17.4)	(18.8)	(18.1)	(14.8)	(10.0)	(12.2)
수 입(억 달러)	1,521	859	922	1,781	963	1,064	2,027
(증가율)	(7.8)	(21.0)	(13.7)	(17.1)	(12.1)	(15.4)	(13.8)
수출입차(억 달러)	103	32	106	138	60	67	127

(2) 성 장

□ 2003년 경제성장률 3.0%로 급격한 하락

○ 2003년 실질GDP는 상반기에 2.8%, 하반기에 3.2% 성장함으로써 연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1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외여건의 악화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급격한 위축으로 2002년 4분기의 6.8%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쳤음.

- 이러한 성장세 둔화가 2분기에는 더욱 심화되어 2분기 성장률은 2%에도 못미친 1.9%에 그쳤음. 국내외 경제외적 불안요인과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임.

- 3분기 들어서도 내구재 및 준내구재에 대한 가계지출이 감소하는 등 소비지출이 부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계속 감소추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3%의 성장을 시현하였음.

- 하반기 전체로는 10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실질GDP는 건설투자는 둔화될 것이나 2003년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강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003년보다 훨씬 높은 5.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민간소비와 설

비투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03년 위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마저 겹쳐 2004년에는 다소 회복될 전망임.

-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진정책 등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여 2003년보다 크게 낮아진 3.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5.3%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그동안의 국내경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인 점을 보거나 2004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가계신용의 회복으로 소비지출이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2005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임.

〈표Ⅱ-8〉 2004년 성장 전망의 고려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미국 등 세계각국의 경기회복세 · 반도체 등 세계 IT산업의 회복 가능성 ·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 이라크 원유 증산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 · 중국의 성장세 지속과 이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의 효과 · 가계신용 회복과 소비심리의 완만한 회복 · 세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지출 여력 증가	· 이라크 문제의 미해결과 이로 인한 세계 정세 불안 가능성 ·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생산, 수출 차질과 외국인투자 위축 ·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재원의 해외유출 ·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 · 미국 경상수지 적자에 기인한 달러화 약세와 이에 따른 원화절상 · 국내 과잉유동성의 부작용 증대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003년 상반기에는 이라크전 발발, 사스의 확산, 가계신용 대란 등 부정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여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 2004년에는 노사불안, 선거 등 일부 불확실 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기 회복세와 내수 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은 개선될 전망임.

□ 성장기여구조의 변화

○ 2003년 하반기 들어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국내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으로써 2003년 상반기 국내경기를 지탱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성장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4년에는 상반기까지는 민간소비가 본격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출이 국내경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들어 세계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심리가 안정될 경우 수출과 함께 내수부문이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나타낼 전망임.

○ 산업별로는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보다 높은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ICT산업의 급속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의 회복에 맞추어 2004년 하반기부터는 전통 주력산업의 성장세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3) 소 비

□ 민간소비지출 : 2004년에는 완만한 회복 전망

○ 민간소비지출은 2003년 상반기에 0.7% 감소하였으며, 7월 이후에도 소비자평가지수가 계속 하락한 데 이어 소비재 출하도 감소 추이를 보임에 따라 2003년 민간소비는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도소매 판매는 하반기에 들어서도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부문별로는 도매업이 기타산업용 중간재, 음식료품 등에서 부진을 나타냈으며, 소매업은 백화점, 무점포소매업 등의 매출이 부진하였음.

· 특히 백화점의 9월 매출이 전년 동기비 -14.0%로 감소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었음.

〈표Ⅱ-9〉 도소매 판매액의 최근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

	2002	2003					
		1/4	2/4	3/4	7월	8월	9월
전 월(기)비	-	-1.9	-1.3	0.6	-0.4	1.0	-1.0
도매업	-	-1.3	-0.6	0.4	0.3	-0.3	-2.3
소매업	-	-2.5	-2.0	3.2	0.2	3.6	0.4
자동차·차량연료	-	-2.6	-2.4	-5.2	-3.9	-0.6	1.1
전년 동월(기)비	8.3	1.5	-1.7	-2.6	-1.9	-2.6	-3.0
도매업	6.8	2.2	-0.7	-0.3	0.9	0.5	-2.3
소매업	8.2	-0.9	-3.8	-2.5	-4.5	-1.1	-1.7
자동차·차량연료	14.4	4.2	-0.7	-10.6	-6.4	-16.3	-8.6

자료 : 통계청.

- 연말에 다가가면서 하반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도소매 판매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판매추이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내구소비재는 승용차, 정수기, 냉장고 등의 출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내구소비재도 남녀기성복, 서적 등의 출하 감소 추이가 지속됨.

- 내수용 소비재중 내구소비재는 특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2002년에 급증한 기술적 반락효과에다 경기여건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이 겹쳐 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소비자 전망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주체들은 향후 경기여건을 상반기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200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03년 9월에는 49.9까지 하락하였음.

-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6개월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지난 4~5월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6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어 2003년 3분기에는 91.1까지 하락하였음.

〈표Ⅱ-10〉 내수용 소비재의 최근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

	2002	2003					
		1/4	2/4	3/4	7월	8월	9월
소비재 출하	8.3	-1.6	-7.4	-6.4	-3.6	-9.4	-6.2
내구소비재	17.1	-4.4	-12.6	-15.1	-12.6	-23.9	-8.2
비내구소비재	4.1	-0.1	-4.6	-1.8	1.2	-1.3	-5.0

자료 : 통계청.

○ 이러한 소비부진 현상은 2003년 3분기에도 이어져 승용차, 에어컨 등 내구재는 물론 의류 등의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에 대한 가계지출이 줄어드는 등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였음.

○ 민간소비지출의 감소세는 2003년 4분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03년 전체로는 1.0% 감소함으로써, GDP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로 부동산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소비지출 지표로 삼고 있는 전세 및 월세 등의 실질적인 하락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움.

〈표Ⅱ-11〉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평가지수 추이

	2002	2003								
		1/4	2/4	3/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 평가지수	98.3	72.3	64.8	62.0	64.7	67.0	62.7	62.1	63.9	59.9
소비자 기대지수	104.7	94.3	93.6	91.1	94.5	94.5	91.7	90.8	92.0	90.4

자료 : 통계청.

-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기업들의 명예퇴직과 청년실업의 증대 추세 등은 소비의 회복세를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신용불량자의 구제에 따른 소비계층의 확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4년에는 이상의 소비지출 증가요인에 덧붙여 내수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드는 효과까지 가세함으로써 소비가 완만하나마 증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상반기 2.3%),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외 경기 회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의 회복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반기 6.2%)되어 2004년 연간 전체로는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의 급격한 내수위축에 따른 반등효과, 세계경기 회복세 지속, 국내 경기 회복세 가시화 등으로 경제불안

〈표Ⅱ-12〉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주 5일 근무확산 여가 증대 · 신용불량자 일부 구제 · 물가안정	· 주택자금대출제한 · 청년 실업 증가 · 기업명예퇴직 증가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4) 투 자

□ **고정자본형성 : 2004년 6% 증가로 빠른 회복 기대**

○ 고정자본형성은 2003년에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에는 상반기에 5.6%, 하반기에 6.3% 증가하여 연간 전체로는 6%의 증가가 예상됨.

○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서는, 2004년에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국내경기침체의 주요인인 소비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최근의 투자 부진에 따라 기업들이 비교적 자금여유를 갖고 있고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상기 전망치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중 긍정적 측면에 좀 더 가중치를 둔 것으로, 실제 투자의 증가율은 무엇보다 향후 국내소비 회복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 : 수요회복으로 2004년 9.8%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2003년 상반기에 0.4%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는 3분기까지의 설비투자 추정치(-4.7%)나 기계수주액 등 관련 선행지표들이 모두 부진

을 면치 못하였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증가가 확실시됨. 이에 따라 2003년 연간 전체로 설비투자는 -1.2%의 마이너스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04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설비투자가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04년 연간에 걸쳐 회복국면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Ⅱ-13> 2004년 투자 전망의 고려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세계경제 회복 전망 · 국내 소비 회복 전망 · 2003년의 낮은 투자 증가율 · 저금리 기조 · 기업들의 여유자금	· 2003년 건설투자 급증에 따른 반락 가능성 · 부동산 투기 억제책 시행 · 북핵 등 경제외적 불확실성 지속 · 노사불안 지속

<표Ⅱ-14> 최근 설비투자 및 기계수주액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2	2003		
	연간	1/4	2/4	3/4
설비투자(국민계정)	6.8	1.6[p]	-0.8[p]	-4.7[p]
설비투자 추계	1.6	-3.4	-3.7	-7.0[p]
국내기계수주액	21.0	-18.2	-4.8	-8.3[p]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주 : p는 추정치.

○ 2004년 상반기에 8.4%, 하반기에 11.3% 증가하여, 연간 전체로 9.8% 정도의 설비투자 증가가 전망됨.

□ **건설투자 :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2004년 3.1%의 완만한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호황 등에 힘입어 2003년 상반기에 8%에 가까운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3분기 추정치(7.8%)나 관련 선행지표 추이를 보면 하반기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2003년 중에 7.0%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04년에는 2003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반락 효과와 최근의 부동산대책의 영향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의 경우 상반기에 3.2%, 하반기 3.0% 증가하여 연간전체로 건설투자는 3.1% 정도의 증가가 전망됨.

<표Ⅱ-15> 최근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액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2	2003		
	연 간	1/4	2/4	3/4
건설투자	3.3	8.1[p]	7.2[p]	7.8[p]
건설기성액	3.7	16.0	15.8	17.8[p]
국내건설수주	21.3	-2.0	56.3	52.3[p]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5) 수출입

□ 2003년 무역흑자, 138억 달러로 확대 전망

○ 2003년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하고 수입이 17.1% 증가함으로써 흑자 규모가 2002년보다 대폭 늘어난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들어 수출은, 미-이라크 전쟁, 사스확산, 화물연대 파업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상반기에 17.7%나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와서도 증가율이 20% 대로 더욱 높아지고 있음.

- 3분기 수출은 2002년 3분기의 높은 증가율(15.9%)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6.3%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음. 이는 대중국 수출 호조세 지속과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 상승, 반도체·컴퓨터 등 IT제품의 수출회복에 기인함.

○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력 4대 품목이 10월 들어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섬유류를 제외한 전품목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음.

- 상반기 다소 부진하였던 반도체와 컴퓨터는 하반기 들어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도 중국의 내수확대와 유럽 등 GSM 시장에의 진입 성공, 주종 수출품목의 고가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가전과 자동차 등도 우리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중형차 수출비중 상승 등에 따른 고가화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철강과 석유화학도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섬유류는 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및 중국제품에 대한 경쟁력 상실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대중국 수출이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자동차부품·전자부품·철강 등 중간재 수출의 호조로 50%를 넘는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이들 국가의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9월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음.

○ 한편, 2003년 수입은 1분기에는 원유가 급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0.9%나 증가하였으나 2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관련 제품 수입이 위축되면서 2분기 12.1%, 3분기 10.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용도별로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9월까지 17%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소비재의 수입은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11.9% 증가에 그침.

〈표Ⅱ-16〉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1~10
중화학제품	121,569 (-12.8)	134,341 (10.4)	132,139(21.3)
반 도 체	14,259 (-45.2)	16,631 (16.6)	15,587(14.9)
산업용전자	22,794 (-5.8)	28,171 (23.6)	28,591(25.6)
자 동 차	13,319 (0.8)	14,779 (10.9)	14,765(26.4)
철 강 제 품	6,928 (-11.9)	7,065 (2.0)	7,533(30.3)
석 유 화 학	8,394 (-13.2)	9,265 (10.4)	9,679(27.6)
일 반 기 계	8,325 (-0.8)	9,256 (10.4)	9,336(24.5)
가정용전자	9,693 (-4.4)	10,760 (11.0)	10,287(14.0)
선 박	9,909 (17.7)	10,867 (9.7)	9,624(16.7)
경공업제품	24,761 (-11.8)	24,146 (-1.9)	20,008(-0.8)
직 물	8,843 (-13.8)	8,666 (-2.0)	6,935(-4.4)
섬 유 제 품	5,187 (-14.2)	4,938 (-6.5)	3,826(-7.3)
플 라 스 틱	2,001 (-5.6)	2,244 (12.1)	2,093(13.3)

자료 : 산업자원부.

- 원자재의 수입은 하반기 들어와 국제유가 안정으로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자본재는 수출호조에 따라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소비재의 경우 TV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4년, 127억 달러로 여전히 상당히 큰 흑자규모 유지 전망

○ 2004년에는 수출이 12.2%, 수입이 13.8% 증가하여 무역흑자 규모는 2003년보다 약간 줄어든 1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상반기 1,023억 달러(14.8% 증가), 하반기 1,131억 달러(10.0% 증가)로 연간으로는 2,1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의 회복궤도 진입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기회복 등 수출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3년 높은 수출증가율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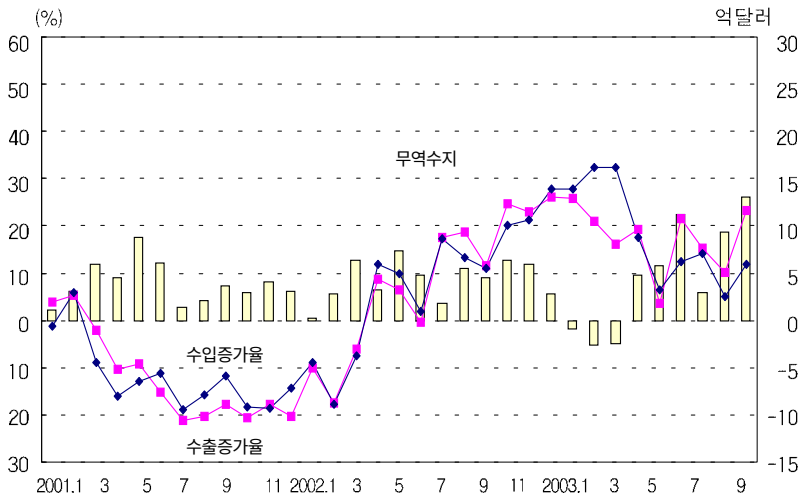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세계경기의 회복의 영향을 받는 IT관련 제품과 대중국 수출증가로 인한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수출이 2004년에도 계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 2004년 수입은 상반기 963억 달러(12.1%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해 1,064억 달러(15.4% 증가)로 크게 증가, 연간으로는 2,0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용도별로는,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그 동안 미루어져 왔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재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 원자재 수입은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Ⅱ-1> 최근 수출입 추이



(6) 물 가

□ 소비자물가 : 2003년 3.4%, 2004년 2.9% 상승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03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연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10월 들어 도시가스의 요금인하로 공공서비스부문의 물가는 하락하였으나, 일조량부족과 태풍피해 등에 따른 과실류의 작황부족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물가가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연초의 공업제품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4.1%까지 급등하였으나 2분기 들어 유가 안정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요인이 줄어듦에 따라 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3분기에는 3.1%로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하반기 들어 유가, 원자재 등 공급측면의 요인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도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정책에 의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04년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낮은 상승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표Ⅱ-17>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전년 동기비, %

	2002	2003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총지수	2.7	4.1	3.3	3.1	3.2	3.0	3.3	3.7
상 품	2.8	4.9	2.6	2.2	2.2	2.0	2.5	3.7
서비스	2.8	3.4	3.9	3.9	4.0	3.9	3.9	3.7
근 원	3.0	3.2	3.2	3.1	3.1	3.2	3.1	2.8

자료 : 통계청.

<표Ⅱ-18>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부동산 가격안정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상승
· 경기침체로 물가상승압력 완화	· 임금상승
· 농산물관련 FTA체결	· 기상이변

- 2003년 하반기 이후 2004년에 들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압력 요인이 있겠으나, 경기회복이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요인들이 안정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노동생산성을 앞서는 임금상승 추이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움직임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농산물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농산물가격 하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Ⅲ. 경제정책 방향

○ 2003년 중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과 소비 및 설비투자의 부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수출과 건설투자의 상대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2002년의 6.3%에는 크게 못 미치는 3%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성장률은 5%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수준임.

○ 특히 2003년 내내 지속되어 온 호조 부문과 부진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진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렵게 만들어 왔음.

○ 특히 경제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2003년 내내 부진한 양상을 보여 온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소비 부진의 원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구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음.

- 흔히들 지적하여 왔듯이 소비 부진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급증에 기인한 바도 있었겠지만, 더욱 근

본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실업 증가에 따른 개인 소득의 감소,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확대로 인한 소비성향의 하락 등이 소비가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2002년의 내구소비재 판매의 급증에 따른 반락 효과도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음.[3)]

○ 향후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여 온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수출호조를 반영하여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 온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렇게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양상을 보여 오는 가운데서도, 수출과 건설투자는 호조를 이어갔음.

- 문제는 이러한 두 분야의 호조가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수출관련 산업, 건설관련 산업만이 호조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 양극화된 두 분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왔다는 것임.

---

3) 이원복,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과 가계부채 문제」(e-Kiet 산업경제정보 제164호), 산업연구원, 2003. 11. 4 참조.

- 특히 국내소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활기저하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2004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더 많은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및 소비의 회복 추세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경제는 5.5%라는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거시경제 전체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그 성장세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불과하므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 부동산대책 등의 이유로 인한 금리 인상 등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특히 2004년의 경기회복이 부진을 거친 후의 성장세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온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다소 완화된 형태로나마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도 크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4년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안정적인 성장 유지 정책"으로 가져가되, 많은 분야에서 미시적인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그 첫 번째 분야로서, 수출관련 산업의 호조를 내수관련 산

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내수 관련 제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 수출산업과의 접목 등을 통해 수출산업화하는 노력을 전개해 가는 산업구조 조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여타 내수관련 업종 특히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두 번째로는 청년실업 등의 실업현안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Work Sharing 등의 방법으로 취업자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며,

- 대학 졸업자들에게 기존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안내하는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 대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인턴 사원제 등을 통해 대학졸업 예정자들의 직장과의 만남을 앞당겨주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재정 면에서 총수요 외부효과도 크면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도 큰 연구개발 부문, 인력개발 부문

혹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 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즉, 규제완화, 설비투자 촉진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네 번째로는 수출 호조 및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 증대 등으로 야기될 원화 절상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이웃 엔화의 환율과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원화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섯 번째로는 총선 실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움직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제2편

2003 · 2004년 산업전망

● 차례 ●

Ⅰ. 개 관 79

1. 2003년 산업동향 79
2. 2004년 산업전망 87
3. 산업별 전망 요약 92

Ⅱ. 산업별 전망 101

1. 자동차산업 101
2. 조선산업 106
3. 일반기계산업 111
4. 철강산업 117
5. 석유화학산업 123
6. 섬유산업 127
7. 가전산업 133
8. 컴퓨터산업 139
9. 통신기기산업 145
10. 반도체산업 151

● 표 차례 ●

〈표Ⅰ-1〉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84
〈표Ⅰ-2〉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85
〈표Ⅰ-3〉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86
〈표Ⅱ-1〉 2004년 자동차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105
〈표Ⅱ-2〉 자동차산업의 수급전망 105
〈표Ⅱ-3〉 2004년 조선산업의 여건 변화 110
〈표Ⅱ-4〉 조선산업 전망 111
〈표Ⅱ-5〉 일반기계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116
〈표Ⅱ-6〉 일반기계산업 전망 117
〈표Ⅱ-7〉 2004년 철강산업의 여건 변화 122
〈표Ⅱ-8〉 철강산업 전망 122
〈표Ⅱ-9〉 2004년 석유화학산업의 여건 분석 126
〈표Ⅱ-10〉 석유화학산업 전망 127
〈표Ⅱ-11〉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증가율 현황 130
〈표Ⅱ-12〉 섬유산업의 여건 변화 132
〈표Ⅱ-13〉 섬유산업 전망 132
〈표Ⅱ-14〉 가전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138
〈표Ⅱ-15〉 가전산업 전망 138
〈표Ⅱ-16〉 컴퓨터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144
〈표Ⅱ-17〉 컴퓨터산업 전망 145
〈표Ⅱ-18〉 2004년 통신기기산업의 여건 분석 150
〈표Ⅱ-19〉 통신기기산업 전망 151
〈표Ⅱ-20〉 반도체산업의 여건 변화 157
〈표Ⅱ-21〉 반도체산업 전망 158

● 그림차례 ●

〈그림Ⅱ-1〉 통신기기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증가율 추이 147

Ⅰ. 개 관

1. 2003년 산업동향

(1) 내 수

□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전, 섬유 등 주력산업 내수 크게 부진

○ 2003년 상반기에는 신모델 출시와 자동차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자동차 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의 내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섬유, 가전산업의 내수도 전반적인 경기부진 속에 가계대출 억제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섬유(섬유사 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7.4% 감소, 가전은 전년 대비 31.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석유화학의 내수는 합섬원료에 대한 일부 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에 대한 내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 하락할 전망임.

- 그러나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철강소비가 많은 주력산업

의 수출호조에 따른 활발한 생산활동에 힘입어 철강제품의 내수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노트북·고성능 주변기기가 컴퓨터·반도체의 내수 확대 주도**

○ 데스크톱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컴퓨팅 확산에 힘입은 노트북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LCD 모니터, DVD-ROM 드라이브 등 고성능·고가 주변기기의 신규수요 증가에 힘입어 컴퓨터 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반도체산업의 경우, 컴퓨터, 통신기기의 내수 및 수출호조로 상반기 16.6%, 하반기 31.5%로 높은 내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수 출

□ **대부분의 산업, 해외여건 호조로 수출 두 자릿수로 크게 증가**

○ 자동차 수출은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서유럽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 사상 최고치인 172만대를 기록할 전망임.

- 수출시장별로는 미국내 판매가 대우자동차의 수출중단으로 2002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유럽시장 판매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52만대를 기록할 전망임.

- 특히, 수출차종의 고급화로 금액 기준 자동차수출 실적(부품 포함)은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조선시황의 활황으로 충분한 일감이 확보된 조선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한 11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대형은 물론이고 일부 중소형 조선소들도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은 건조일정에 따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철강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철강가격이 회복되면서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수입규제 움직임마저 주춤해지면서 철강수출은 물량기준 7.7%, 금액기준 28% 증가한 9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은 상반기에 23.5%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연말까지 19.9% 증가한 15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IT제조업 수출증가율 두 자릿수 기록**

○ 디지털가전의 수출은 사스 진정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 지속 증가와 디지털 TV의 유럽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컴퓨터 수출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IT투자 감소,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수출환경이 양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됨.

○ 통신기기 수출의 경우 미국, 중국 등으로의 시장확대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의 CDMA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기기의 수요 확대, 그리고 EU, 인도, 중동 등 GMS시장에 대한 수출호조 등이 작용하여 전년 대비 37.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반도체 수출의 경우 2003년에는 메모리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일관생산제품이 호조를 보였고, 비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하는 조립가공무역도 하반기에 크게 늘어났음.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D램, S램, 플래시메모리 등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본격 회복되었고,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수탁무역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음.

(3) 생 산

□ **주력산업, 전반적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 조선, 일반기계 등 최종재산업의 경우 전반적인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여 2003년 생산은 4~11%의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철강, 석유화학 등 중간재산업 역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의 수출호조로 중간재수요가 증가하면서 2003년 생산은 전년 대비 약 4% 전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로 상용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3%가 감소한 305만대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섬유산업의 생산은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섬유사 기준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IT제조업, 수출호조로 두 자릿수의 높은 생산증가 전망**

○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IT제품의 내수 및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여,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산업의 국내생산은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컴퓨터의 경우 생산이 5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에는 월간기준 사상 최고수준인 2조 8,500억원의 생산액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73.5%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졌음.

○ 가전산업의 경우 지난해 월드컵 특수효과로 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생산은 2003년에 기대 이상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의 폭이 워낙 커 13% 정도 감소할 전망임.

〈표Ⅰ-1〉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단위 :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대)	1,622 (1.5)	730 (14.7)	600 (-26.0)	1,330 (-18.0)	1,558 (17.1)
일반기계 (십억원)	40,906 (7.8)	21,629 (8.4)	21,368 (2.0)	42,997 (5.1)	46,437 (8.0)
철 강 (천톤)	43,720 (14.7)	22,382 (5.3)	24,036 (7.0)	46,418 (6.2)	47,950 (3.3)
석유화학 (천톤)	10,317 (8.5)	5,088 (0.2)	5,125 (-2.1)	10,213 (-1.0)	10,723 (5.0)
섬 유 (천톤)	1,183 (-23.8)	538 (-10.0)	557 (-4.5)	1,096 (-7.4)	1,134 (3.5)
가 전 (십억원)	12,302 (12.4)	4,034 (-41.2)	4,358 (-19.9)	8,392 (-31.8)	9,050 (7.8)
통신기기 (십억원)	19,466 (27.0)	9,928 (7.1)	10,500 (3.0)	20,428 (5.0)	22,300 (9.2)
컴 퓨 터 (십억원)	10,301 (22.4)	5,851 (13.7)	8,137 (57.8)	13,988 (35.8)	16,758 (19.8)
반 도 체 (십억원)	31,370 (21.3)	18,948 (16.8)	20,396 (31.5)	39,344 (25.4)	46,780 (18.9)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가전은 영상기기, 음향기기, 가정용 회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난방 및 전열기기, 조명기기, 전자시계 및 전자게임기, 가전부품 기준임.

〈표Ⅰ-2〉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15,755 (13.4)	9,681 (36.4)	10,327 (17.9)	20,044 (27.0)	22,078 (10.3)
조 선	10,670 (10.0)	6,160 (22.7)	5,770 (2.1)	11,930 (11.8)	12,030 (0.8)
일반기계	12,502 (12.8)	7,435 (23.1)	7,555 (16.9)	14,990 (19.9)	17,763 (18.5)
철 강	7,065 (2.0)	4,329 (31.6)	4,712 (24.8)	9,041 (28.0)	9,131 (1.0)
석유화학	4,321 (5.1)	2,540 (25.1)	2,861 (24.9)	5,401 (25.0)	5,509 (2.0)
섬 유	15,674 (-2.5)	7,300 (-2.1)	7,988 (-2.8)	15,288 (-2.5)	15,701 (2.7)
가 전	10,760 (11.0)	5,981 (10.4)	6,508 (21.8)	12,489 (16.1)	13,950 (11.7)
컴 퓨 터	12,941 (15.1)	6,488 (0.8)	8,413 (29.4)	14,901 (15.1)	18,030 (21.0)
통신기기	14,232 (34.3)	8,394 (39.6)	11,200 (36.3)	19,594 (37.7)	24,570 (25.4)
반 도 체	16,631 (16.6)	8,259 (6.4)	12,051 (35.8)	20,310 (22.1)	25,230 (24.2)
합 계 (A)	120,552 (12.0)	66,567 (17.9)	77,385 (20.7)	143,952 (19.4)	163,992 (13.9)
총수출액 (B)	162,471 (8.0)	89,100 (17.4)	102,800 (18.6)	191,900 (18.1)	215,400 (12.2)
10대 주력 산업의 총수출비중(A/B)	74.2	74.7	75.3	75.0	76.1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2) 자동차의 경우는 완성차와 부품, 섬유의 경우 섬유사, 직물, 의류 등 섬유산업제품 모두 포괄. 가전은 영상기기, 음향기기, 가정용 회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난방 및 전열기기, 조명기기, 전자시계 및 전자게임기, 가전부품 기준임.

<표 Ⅰ-3>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단위 :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대)	3,148 (6.8)	1,646 (9.5)	1,407 (-14.4)	3,053 (-3.0)	3,420 (12.0)
조 선 (백만 달러)	10,790 (9.3)	6,190 (20.4)	5,790 (2.5)	11,980 (11.0)	12,050 (0.6)
일반기계 (십억원)	40,880 (7.9)	21,473 (5.5)	21,584 (5.2)	43,057 (5.3)	46,415 (7.8)
철 강 (천톤)	51,676 (5.7)	26,094 (3.3)	27,614 (4.5)	53,708 (3.9)	55,350 (3.1)
석유화학 (천톤)	16,092 (5.8)	8,119 (2.7)	8,536 (4.3)	16,655 (3.5)	17,371 (4.3)
섬 유 (천톤)	2,716 (-10.7)	1,317 (-2.5)	1,336 (-2.1)	2,654 (-2.3)	2,720 (2.5)
가 전 (십억원)	22,004 (8.8)	9,214 (-22.2)	9,910 (-2.4)	19,124 (-13.1)	20,305 (6.2)
컴 퓨 터 (십억원)	19,383 (-3.5)	10,350 (7.6)	14,691 (50.4)	25,041 (29.2)	30,425 (21.5)
통신기기 (십억원)	32,134 (31.3)	17,697 (21.2)	21,600 (23.2)	39,297 (22.3)	45,673 (16.2)
반 도 체 (십억원)	30,673 (25.3)	16,920 (43.0)	19,910 (37.8)	36,830 (20.1)	44,840 (21.7)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가전은 영상기기, 음향기기, 가정용 회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난방 및 전열기기, 조명기기, 전자시계 및 전자게임기, 가전부품 기준임.

2. 2004년 산업전망

(1) 내 수

□ 전반적인 국내경기 호조로 전년 대비 내수 소폭 증가 전망

○ 경기침체로 크게 감소하였던 자동차 국내 판매가 2004년에는 자동차업체의 무이자 할부판매 등 인센티브 강화와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하겠지만 여전히 2002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기계의 내수는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설비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8%의 성장이 예상되며 그 규모는 46조 4,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의 생산증가에 따른 철강소비가 200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판재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민간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봉·형강류에 대한 철강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석유화학 내수는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호조로 인해 2003년보다는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전년 대비 다소 낮은 5%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섬유산업의 2004년도 내수는 경기와 개인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임.

□ IT제조업의 내수 또한 견실한 증가세 유지 전망

○ 2004년 가전산업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내수가 증가할 것이나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탄력이 붙은 수출확대가 지속되면서 계속 성장할 전망임.

○ 노트북 중심의 휴대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PC 교체수요 발생이 본격화되면서 내수는 PC 및 고성능 주변기기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카메라폰 등 제품고도화에 따른 대체수요 확산과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통신기기 내수는 9.2%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PC를 비롯하여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非PC계열 IT제품의 수요상승으로 반도체 내수 급증이 전망되며, 자동차, USB메모리 스토리지 등에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2) 수 출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최종재 수출호조 2004년에도 지속 전망

○ 자동차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세와 국내제품의

인지도 상승, 새로운 모델의 출시, 소형승용 및 디젤승용의 유럽 본격수출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약 2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조선수출은 그 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년 대비 0.8% 증가한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 일반기계의 수출은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조짐과 대중국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약 177억 6,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1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철강·석유화학 등 소재산업, 내수호조로 수출여력이 제한되면서 수출증가세 둔화 전망**

○ 세계 철강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약화되면서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호조로 인한 수출여력 부족으로 큰 폭의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의 경우 국내 생산증가 대비 국내 수요의 상대적인 호조로 인한 수출여력 둔화로 인해 금액기준으로 2% 증가에 그칠 전망임.

○ 또한 섬유(섬유사, 직물, 의류 포함)의 경우도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우리 주요시장 잠식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T제조업, 세계 경제회복과 IT수요 회복세로 수출호조 예상**

○ 가전의 수출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가 지속, 2004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컴퓨터산업의 수출은 미국 등 세계 IT지출의 회복과 신흥시장의 정보인프라 수요증가, 한국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한 1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은 주력시장인 미국의 시장확대 전망과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이동전화기의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04년에도 두 자릿수 수출증가를 계속 유지, 총수출액은 2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 수출은 선진국 IT산업의 수요가 점차 되살아나고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24.2% 증가한 25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10대 주력산업의 총수출 비중 크게 증가 전망**

○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003년 19.5%에서 2004년에는 13.2%로 소폭 둔화될 전망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0대 주력산업의 총수출 비중은 2002년 74.2%, 2003년 75.0% 수준에서, 2004년에는 76.1%로 전년 대비 약 1% 포인트 커질 것으로 전망됨.

(3) 생 산

□ 6대 주력산업,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로 견실한 성장세 유지

○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2004년 자동차생산은 올해에 비해 12.0% 증가한 342만대에 달할 전망임.

○ 2004년 조선산업의 생산은 수주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기준 약 725만 CGT, 금액기준 약 120억 5,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임.

○ 일반기계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 등 관련 수요산업의 생산라인 증설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내수증대에 힘입어 2004년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46조 4,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이 늘어나 수급이 균형을 이루겠으나 반제품 및 봉형강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의 경우 대규모의 신·증설 투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2003년 합섬원료(TPA)와 ABS부문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신증설 투자의 여파와 세계경기의 상대적 호

조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생산은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섬유생산은 내수 및 수출회복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T산업 또한 내수 및 수출호조로 지속적인 생산 증가 예상**

○ 내수회복과 디지털 TV 등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출 증가, 백색가전의 수출단가 인상 등 수출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디지털가전의 생산은 6.2% 성장세가 예상됨.

○ 노트북 및 모니터의 수출확대가 지속되는 한편 PC 교체수요 증가와 전반적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 컴퓨터의 2004년 생산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확대와 번호이동성 등 국내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예상되어 통신기기의 2004년 생산은 1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산업별 전망 요약

□ 자동차

○ 경기침체로 2003년에 크게 감소하였던 자동차 내수가

2004년에는 자동차업계의 판매 인센티브 강화와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되겠으나, 2002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임.

- 2004년 자동차판매는 올해에 비해 17.1% 증가한 156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세와 국내제품의 인지도 상승, 대우차의 수출 재개, 중국의 시장개방 가속화, 유럽시장 등에 대한 소형승용차 및 디젤승용차의 본격수출 등으로 인해 수출은 올해보다 7.8% 증가한 186만대를 기록할 전망임.

- 금액기준으로는 완성차 수출이 7.3% 증가한 176억 9,800만 달러, 부품수출이 24.5% 증가한 43억 8,000만 달러로 전체 2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4년 자동차생산은 올해에 비해 12.0% 증가한 342만대에 달할 전망임.

□ 조 선

○ 2004년 선박수주는 2003년의 발주 급증추세가 누그러지면서 탱커, 컨테이너선의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근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LNG선의 수주는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2004년 선박 수주물량은 연평균 수주물량에 준한

약 810만 CGT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조선산업의 생산 및 수출은 그 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기준 약 725만 CGT, 금액기준 약 120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작년에 선가개선이 반영된 탱커 및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로 조선업체의 채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기계

○ 2004년 일반기계의 내수는 2003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8%의 성장이 예상되며 그 규모는 46조 4,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조짐과 대중국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약 1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1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경우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에 따른 NC공작기계, 머시닝센터 등의 공작기계류와 냉동공조기계 및 건설용기계, 굴삭기 등의 건설광산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가공기계에 대한 수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반기계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 등 관련 수요산업의 생산라인 증설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내수증대에 힘입어 2004년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46조 4,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78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핵심 부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동화 기계 및 초정밀 금형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계장비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철 강

○ 2004년 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이 늘어나 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반제품 및 봉·형강류 수입이 감소할 전망임.

-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생산활동이 200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강 실질소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및 토목경기 둔화에 의해 건설용 철강제품 내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철강수요가 회복되고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약화되면서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여력의 제약으로 인해 큰 폭의 수출확대는 어려울 전망임.

- 반제품 및 봉·형강류의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철강수입은 4.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

○ 2004년에 내수는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호조로 인해 2003년보다는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실질 GDP의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5% 정도로 증가할 전망임.

○ 수출은 전세계적인 신·증설투자의 부진과 중국에서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여건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 국내 생산증가 대비 국내 수요의 상대적인 호조로 인한 수출여력의 둔화로 인해 물량기준으로는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공급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신·증설 투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다만 2003년에 합섬원료(TPA) 부문과 ABS 부문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신증설 투자의 여파와 세계경기의 상대적 호조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생산은 4.3%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섬 유

○ 내수는 국내경기 상승 및 주가상승 등에 힘입은 민간소비심리 회복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섬유사, 직물, 의류 포함)은 경쟁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

에 힘입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섬유산업은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생산은 미약하나마 2003년보다 늘어날 전망임.

□ 가 전

○ 2004년 가전산업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내수가 증가할 것이나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탄력이 붙은 수출확대가 지속되면서 성장할 전망임.

○ 수출은 세계 주요 경기전망기관들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2004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바, 경기회복과 비례해 소비가 늘어나는 가전제품의 수요가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12% 증가하면서 2003년에 이어 계속 가전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가 회복되고, 디지털 TV 등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출 증가, 백색가전의 수출단가 인상 등 수출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생산은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은 일본산 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증가로 12.4% 증가할 전망임.

- 최근 환율하락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중국산 소형 가전제품, 일본산 디지털 제품, 관련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컴퓨터

○ 2004년 국내 컴퓨터산업은 세계 IT경기의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특히 수출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2003년 하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임.

○ 노트북 중심의 휴대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PC 교체수요 발생이 본격화되면서 내수는 PC 및 고성능 주변기기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컴퓨터산업의 가장 큰 성장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IT지출의 회복과 신흥시장의 정보인프라 수요증가, 한국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21%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생산은 노트북 및 모니터의 수출확대가 지속되는 한편 PC 교체수요의 증가가 기대되고 전반적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면서 21.5%의 증가가 예상됨.

□ 통신기기

○ 2004년 미국, EU 등 세계경제와 한동안 부진했던 IT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신기기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동전화기 시장의 경우 제품별로는 컬러폰, 카메라폰 등으로 수요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도 수요확산이 전개되어,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통신기기시장의 경우 이러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확대와 함께 번호이동성 도입 등 국내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예상되어 생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수출의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이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이동전화기에 대한 시장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이 예상됨.

- 다만, 수출시장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선진업체와의 경쟁격화가, 내수시장에서는 장비업체의 수요처인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부진이 예상되고 있음.

□ **반도체**

○ 2004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되고, 미국의 IT산업 수요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경기가 왕성한 회복 기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 응용제품별로 보면 PC를 비롯하여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非PC계열 IT제품의 점진적인 수요상승으로 회복이 촉발되고 있음.

- 또한 자동차, USB메모리 스토리지 등과 같은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등장하여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국내 반도체 응용제품의 수출호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평판TV 등에 필요한 반도체의 경우 대부분 비메모리로서, 이들 제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모바일제품은 비메모리의 비중이 높아 반도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에도 반도체무역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Ⅱ. 산업별 전망

1. 자동차산업

(1) 2003년 동향

□ 수요부진 속에 일본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세계 자동차 수요는 세계시장의 71.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서유럽시장의 수요가 0.5~1.5% 감소하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여타 개도국의 수요는 부진한 상황임.
- 선진국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중국 및 동구권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지역의 생산능력이 급증하고 있음.
- 고급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및 소형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판매가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디젤자동차의 수요 역시 유럽을 중심으로 증가추

세를 지속함.

- 브랜드 인지도, 품질, 안전성이 뛰어난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진국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업체의 생산과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경기침체로 내수 큰 폭 감소

○ 국내 자동차판매는 2003년 1~11월중 경기침체로 인해 121만 7,000대에 그쳐 전년 동기비 18.3%나 감소하였음.

- 국내 자동차판매는 지난 8월까지 감소한 후 9월 이후 회복세로 반전되었으나, 10월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한 데 이어 11월 판매도 23%가 감소함.

- 차종별로는 경차와 중형차 판매가 급감한 반면 SUV의 판매는 소폭 감소함.

○ 수출은 서유럽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로 1~11월중 전년 동기비 18.8%가 증가한 161만대를 기록함.

- 1~10월중 승용차 수출이 18.6% 증가한 반면 상용차 수출은 0.2%가 감소함.

- 수출시장별로는 미국내 판매가 대우자동차의 수출중단으로 0.8% 감소한 54만 585대를 기록한 반면 유럽시장 판매는 전년 동기비 18.9% 증가한 39만 9,000대를 기록함.

○ 이와 같이 내수부진 속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으로써 2003년 1~11월중 자동차생산은 전년 동기비 0.7% 증가한 288만대를 기록함.

- 승용차 생산이 수출 호조로 4.0% 증가한 반면 상용차 생산은 경기침체로 16.9% 감소함.

○ 수입은 1~10월중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비 21.5%가 증가한 5억 4,957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 자동차 판매는 1~10월중 전년 동기비 18.1%가 증가한 1만 3,354대를 기록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인도 타타그룹이 대우상용차를 인수하고 일본과 유럽 부품업체들의 투자가 증가했음.

- 국내 설비투자는 내수침체로 부진한 상황이었음.

(2) 2004년 전망

□ **내수회복과 수출 증가세 지속**

○ 2004년 국내 자동차 판매는 2003년 대비 10.9% 증가한 155만 8,000대를 기록하겠으나 여전히 2002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임.

- 승용차 판매는 회복되겠으나 상용차 판매가 부진할 예상임.

○ 자동차 수출은 유럽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 증가와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도 GM대우의 수출이 재개되면서 2003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개도국 판매 역시 증가하면서 2003년 대비 7.8% 증가한 185만 8,000대를 기록할 전망임.

- 금액기준으로는 완성차 수출이 7.3% 증가한 176억 9,800만 달러, 부품수출이 24.5% 증가한 43억 8,000만 달러로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상임.

□ **생산, 사상 최대치 갱신 전망**

○ 이러한 내수 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은 전년비 12.0%가 증가한 342만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임.

○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임러벤츠와 현대간의 상용차 합작투자가 마무리되고 부품업체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5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임.

- 국내 설비투자 역시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외 수요증가와 대우자동차의 정상화, 기존 업체의 유연생산설비 구축 등으로 증가할 전망임.

〈표Ⅱ-1〉 2004년 자동차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신차종 출시	· 상반기 경기 불안 심리 상존 · 중산층 이하의 소득 감소
수 출	· 세계 경제의 본격 회복과 서유럽 및 중국시장 수요 지속 증가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신차종 출시	· 원화 강세와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 신차종 대량 출시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생 산	·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에 따른 수출 신장세 지속	
수 입	· 고급차 수요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확대 · 일본산 자동차 수요 증가	
종 합 평 가	·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서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수요 증가로 수출증가세 지속과 내수 회복	·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설비 구축과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에 따른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

〈표Ⅱ-2〉 자동차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대,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1,622 (1.5)	730 (14.7)	600 (-26.0)	1,330 (-18.0)	1,558 (17.1)
수 출	1,510 (0.6)	844 (24.0)	879 (48.0)	1,723 (20.8)	1,858 (7.8)
생 산	3,148 (6.8)	1,646 (9.5)	1,407 (-14.4)	3,053 (-3.0)	3,420 (12.0)
수 입	17.1 (75.0)	9.9 (20.0)	13.2 (49.1)	24.0 (40.3)	34.0 (41.7)

주 : ( ) 안은 증감률.

2. 조선산업

(1) 2003년 동향

□ 세계 조선시황의 호조로 수주급증

○ 세계 조선시황의 활황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9월 말 수주는 244.1% 증가한 18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국내 조선산업의 9월 말 기준 수주량은 작년 대비 약 234.4%가 증가한 1,319만 CGT를 기록하여 호황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작년 전체 수주물량 561만 CGT의 2.4배 규모임.

- 특히 대형은 물론이고 일부 중소형 조선소들도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조선소에서 수주한 선박은 대부분 수출선박으로 내수물량은 일부 소형 컨테이너선 3척(점유비중 0.2%)에 불과함.

○ 선종별 수주내역을 보면 저부가가치선인 벌크캐리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종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탱커의 경우 약 530만 CGT로 전년 대비 2.8배, 컨테이너선 약 672만 CGT로 전년비 6.3배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LNG선은 10월 이후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컨테이너선은 8,000TEU급 이상의 대형선박 비중이 수주물량의 30%인 47척에 달하고 있고, 동 선박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들의 건조경쟁력이 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생산 및 수출은 건조일정에 따라 증가 추세**

○ 2003년 9월 말 선박 건조량은 179척, 약 592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하였음.

-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건조가 이루어질 경우 2003년의 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가 증가한 약 720만 CG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9월말 기준 수주잔량은 699척, 2,433만 CGT로 3년 정도 조업이 가능한 건조물량을 확보한 상황임.

- 따라서 2003년의 선박 생산은 금액기준 전년 대비 약 11.0% 증가한 119.8억 달러, 수출은 약 11.8% 증가한 119억 2,000만 달러로 추정됨.

(2) 2004년 전망

□ **발주규모의 감소 및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예상**

○ 2003년의 수주실적 및 수주잔량이 사상 최대규모를 보임

에 따라 2004년에는 고부가가치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가 예상됨.

- 세계조선시장의 발주규모가 2003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LNG선의 발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국내 조선산업은 충분히 확보된 안정적 일감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선별적 수주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겨냥하여 대형 LNG선, LNG-FPSO의 수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도 활발 예상**

○ 국내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크게 늘면서 동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 LNG선을 비롯, LNG-FPSO, 대형 여객선, 해양플랜트 등의 수주 및 건조에 대비하고 나아가 각종 해양구조물, AUV[1], ROV[2]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1)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2) Remotly Operated Vehicle.

□ 특수분야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부족 애로 지속

○ 인력 수급 불균형, 특수분야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현장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해양플랜트 관련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장부문 등은 3D직종으로 인식되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특정부위 근육의 과다 사용에 의해 초래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분류체계, 판정기준의 일관성 미흡 및 전문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신조선가는 완만한 상승세 지속

○ 2002년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선박 발주물량 증가와 함께 꾸준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조선가도 지속적 상승이 예상됨.

- 신조선가는 2003년 10월말 기준 VLCC의 경우 약 7,100만 달러로 상승하여 최저수준 대비 13.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컨테이너선의 경우도 선박 수급상황 개선과 물동량이 늘면서 3,5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가가 최저수준 대비 21.2%의 상승률을 보였음.

- 한편 LNG선의 선가는 아직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발주물량이 늘면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수주 감소, 생산 및 수출은 증가율 감소

○ 2004년의 선박 수주는 2003년의 초호황세에 비해 발주규모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은 감소할 전망임.

- 2003년의 대폭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이미 3년간의 건조일감을 채워가고 있고, 세계시장의 발주감소가 예상되므로 2004년의 수주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생산 및 수출은 그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할 전망임.

- 2004년 조선산업의 생산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약 120억 5,000만 달러, 수출은 0.8% 증가한 약 120억 3,000만 달러로 예상됨.

<표Ⅱ-3> 2004년 조선산업의 여건 변화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선박펀드의 추진 · 해운업체의 시황호전	· 해운업체의 보유선박의 감소 · 원근해 어업 침체
수 출	· IMO 단일선체 운항금지, 기준미달선 규제 강화로 선박해체 증가 · 세계경기 회복/해상물동량 증가	· 노후선박 대체 감소 · 중국의 부상
생 산	· 생산성 향상 및 공법개선 · 충분한 건조물량 확보 (약 3년치)	· 환율절상
종합평가	· 단기적으로 안정적, 큰 여건변화는 없음(3년치 건조물량확보)	

주 : 수입은 규모가 미미하여 생략함.

<표Ⅱ-4> 조선산업 전망

단위 : 억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수 출	106.7 (10.0)	61.6 (22.7)	57.7 (2.1)	119.2 (11.8)	120.3 (0.8)
생 산	107.9 (9.3)	61.9 (20.4)	57.9 (2.5)	119.8 (11.0)	120.5 (0.6)

주 :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 국내 조선산업은 가격 경쟁력 우위는 물론 기술·생산성·품질·납기·A/S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격차를 좁히고 있어 당분간 종합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3. 일반기계산업

(1) 2003년 동향

○ 2003년 국내 기계수주동향은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2%의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이후 수출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하여 8월말까지 13.9%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의 경우 2002년 1.6%의 회복세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에 접어들어 1/4분기, 2/4분기 각각 3.4%와 3.7%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7월 11.1%, 8월

7.8% 감소 등 3/4분기 이후 그 감소추세가 확대되어 8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2003년 9월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하여 111억 3,97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에 23.1%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연말까지 19.9% 증가한 15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품목별로는 NC금속절삭가공기계가 32.7% 증가한 2억 2,080만 달러, 건설광산기계가 16.0% 증가한 12억 6,600만 달러, 냉동공조기계가 9.1% 증가한 13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지역별로는 기간중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수출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 5.5%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국내적으로는 내수경기의 악화와 국외적으로는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인하여 3/4분기 0.8%의 증가에 그쳐 9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4/4분기에는 내수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연간기준 5.3%의 증가를 기록하여 43조 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9월말 기준 생산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제조용 장비가 70.2%의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하여 생산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그 뒤로 농업기계 29.9%, 운반하역기계 25.2%, 건설광산기계 11.2% 등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한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품목은 자동판매기(-25.9%), 수지식동력구동공구(-18.8%), 액체 및 기체여과청정기(-11.2%) 등으로 나타났음.

○ 수입은 2003년 1~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하여 113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여 무역수지 측면에서 약 1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으며 4/4분기에도 설비투자 감소세의 완화에 따라 연말까지 149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여 전년 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반면 섬유기계와 인쇄제본기계 등의 경우 각각 2003년 1~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 -19.0%를 기록하였음.

(2) 2004년 전망

○ 국내 내수는 높은 실업률과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하여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2003년 4/4분기 이후 점차 설비투자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속적

인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2004년 1/4분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확대 → 국내생산증가 → 내수소비증가'라는 경기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볼 때 2003년 4/4분기 이후 설비투자 회복 조짐은 내수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내수는 2004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8%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며 그 규모는 46조 4,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기계 수출은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조짐과 대중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약 1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03년 대비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일반기계산업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경제가 2003년 하반기 이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2003년보다 높은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두 번째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도 2000년대 들어 지속된 7~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200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시장이 낙관적으로 예상됨.

- 이라크 전후처리사업이 본격화되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산 건설광산기계 및 플랜트 수출과 이에 따른 기계류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경우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에 따른 NC공작기계, 머시닝센터 등의 공작기계류와 냉동공조기계 및 굴삭기 등의 건설광산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가공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반면 2004년에는 2003년보다 환율이 더욱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후발개도국들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져 2003년의 지속적인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락세가 200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확대 예상**

○ 일반기계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 등 관련 수요산업의 생산라인 증설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04년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46조 4,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에 치러질 총선과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이에 따른 정부의 노사정책 등이 생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제조용 장비, 자동화장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예상

○ 2004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약 1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확대로 핵심 부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동화 기계 및 초정밀

<표Ⅱ-5> 일반기계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하반기이후 설비투자 확대	· 상반기 경기 불안 심리 상존 · 국내 건설경기 위축
수 출	·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가능성 증대 및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따른 수출기회 증대	· 원/달러 환율 저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 심화
생 산	·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라인증설 및 공장자동화에 따른 수요 증가	·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 우려
수 입	·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핵심 기계설비류 수입 확대 · 반도체제조용 장비 및 초정밀 금형 수입 확대	
종 합 평 가	·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수출 여건 호조 및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일반기계산업의 경기 호조 예상	

<표Ⅱ-6> 일반기계산업 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40,906 (7.8)	21,629 (8.4)	21,368 (2.0)	42,997 (5.1)	46,437 (8.0)
수 출	12,502 (12.8)	7,435 (23.1)	7,555 (16.9)	14,990 (19.9)	17,763 (18.5)
생 산	40,880 (7.9)	21,473 (5.5)	21,584 (5.2)	43,057 (5.3)	46,415 (7.8)
수 입	12,523 (12.5)	7,564 (33.1)	7,376 (7.8)	14,940 (19.3)	17,779 (19.0)

주 : 1) 생산 및 내수는 원화, 수출입은 달러화 기준.
2)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금형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계장비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수출증대 및 국내 수요증가로 인하여 일본 및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제조용 장비와 자동화생산 장비 등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임.

4. 철강산업

(1) 2003년 동향

□ 국내 철강소비 큰 폭으로 증가

○ 2003년 국내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철강소비

가 많은 주력 기간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힘입어 대부분의 철강제품 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이에 따라 철강재를 기준으로 한 명목소비는 연간 4,642만톤에 달해 전년 대비 6.2%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건설경기 호조세 지속으로 선재, 철근, 봉강의 출하증가율이 전년에 이어 계속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조선산업에서의 철강소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한편 국내 철강산업의 수요증가는 실질소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자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증가에도 힘입은 바 크며, 여기에 철강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늘어난 가수요도 내수증가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내수증가로 수입 급증

○ 2003년 철강수입은 반제품 및 건설, 자동차, 조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전년에 이어 반제품, 스크랩 등 중간재의 수입이 계속 늘어났고, 철근이 전년 대비 2.2배나 수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용융아연도, 전기아연도 등의 기능성 강재, 후판, 봉강 등 일반제품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음.

- 반면 국내경기 및 소비부진을 반영하여 음료수캔에 사용

되는 석도강판과 착색아연도강판 등은 수입이 감소하였음.

□ **대외여건 개선되면서 수출 호조**

○ 2003년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여건이 개선되었음. 여기에 주요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주춤하면서 수출증가세를 유지, 물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7%를 기록할 전망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28%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제품별로 살펴보면, 국내수요가 크게 늘어났던 형강, 철근, 강관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채산성이 좋아진 후판의 수출이 9월까지 67%나 늘어났으며, 봉강, 열연, 용융아연도, 전기강판 등의 수출도 10~16% 정도 증가하였음.

○ 한편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톤당 평균 수출단가가 603달러, 수입단가는 373달러로 나타나 수입이 주로 단가가 낮은 반제품 및 봉형강류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판재류 제품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반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단가의 상승폭을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수입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한 반면, 수출단가는 4.3% 상승에 그쳤음.

□ 내수증가에 힘입어 생산 역시 증가

○ 2003년 국내 철강생산은 철강재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출하호조에 힘입어 가동률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건설호황에 힘입어 전기로 부문의 생산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서 비롯됨.

- 한편 2003년 9월까지의 조강을 기준으로 한 생산실적을 보면 전기로부문 및 전로 부문이 각각 1,523만톤, 1,895만톤을 생산하여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2.0% 증가하였음.

(2) 2004년 전망

□ 2004년에도 국내 철강소비는 완만한 증가 기대

○ 2004년에도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활동이 200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철강 실질소비는 올해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경기, 특히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경기의 현저한 둔화로 봉·형강류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용 소비는 위축될 전망임.

- 내수가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국내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조선산업에서는 기존 수주물량에 기반을 둔 생산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주로 비롯됨.

- 건설부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 억제정책으로

인해 건축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최근 1~2년간 철강제품 물량확보를 위한 시장재고 증가현상이 소멸되면서 봉·형강류의 실질소비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임.

□ **철강수출 다소 확대, 수입은 감소 예상**

○ 2004년에는 세계 철강수요가 회복되고 주요 수출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다소 완화되면서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여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2003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할 전망임.

-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수입규제 움직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2004년에는 봉·형강류의 수입이 감소하고 일부 제품들도 국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철강수입이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감소는 반제품 및 보통강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수강 수입은 꾸준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국제 철강산업이 회복되고 중국의 철강생산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철스크랩 가격 상승이 200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전기로업체로서는 스크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시급함.

〈표Ⅱ-7〉 2004년 철강산업의 여건 변화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설비투자 회복 · 가전, 자동차 생산 증가 기대 · 조선, 일반기계 안정적 성장	· 건설경기 둔화 · 재고조정
수 출	· 세계경제 회복, 아시아 철강수요 증가	· 수출여력 감소
생 산	· 구조조정(한보, 기아특강) 완료 · 포스코 설비 보수 종료	· 전기로 생산조정
수 입		· 국내 공급 원활 · 봉·형강류 수입 둔화
종합평가	· 국내 경제 회복으로 내수 증가 지속되고 생산도 늘어나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	

〈표Ⅱ-8〉 철강산업 전망

단위 : 천톤,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43,720 (14.7)	22,382 (5.3)	24,036 (7.0)	46,418 (6.2)	47,950 (3.3)
수 출	13,873 (-6.4)	7,286 (4.6)	7,661 (10.9)	14,947 (7.7)	15,100 (1.0)
생 산	51,676 (5.7)	26,094 (3.3)	27,614 (4.5)	53,708 (3.9)	55,350 (3.1)
수 입	24,331 (18.3)	12,521 (3.7)	12,901 (5.2)	25,422 (4.5)	24,350 (-4.2)

주 : 1) 생산 및 내수는 철강재 기준, 수출입은 철강제품(MTI code 61) 기준임.
2)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5. 석유화학산업

(1) 2003년 동향

□ 내수, 국내경기의 침체로 다소 감소할 전망

○ 2003년 내수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1% 하락할 전망임.

○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부문별로는 합성고무와 합성수지의 내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합섬원료의 내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3년 1월~9월까지의 내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내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13% 하락한 반면, 합섬원료의 내수는 3.1% 상승하였음.

□ 수출, 물량은 견실하게 증가하고 금액은 크게 증가할 듯

○ 2003년에 수출은 생산능력과 생산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침체로 물량기준으로는 6.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1월~9월까지의 3대 유도품 수출실적은 물량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음.

○ 2003년 수출단가는 연초의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납사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적인 수급요인도 다소 호전되면서

2000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3/4 분기 이후 하락추세를 지속하여 2001년 11월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수출단가는 2003년 상반기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2003년 전체적으로 수출단가는 작년 수준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볼 때 2003년 수출금액은 수출물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25%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2003년 1월~9월까지의 대세계 수출금액 실적치는 3대 유도품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음.

□ **생산, 전체적으로는 신·증설 투자 부진 속에 일부의 생산능력 증가**

○ 석유화학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신·증설 투자가 부진한 구조조정기에 있지만, 2003년에는 합섬원료(TPA)와 ABS부문에서 일부의 신증설로 생산능력이 다소 증가하였음.

(2) 2004년 전망

□ **내수, 국내경기의 호조로 합성수지 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 유지 전망**

○ 2004년에 내수는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호조로 인해 2003

년보다는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실질 GDP의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은 5%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자동차, 전자, 건설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투입되는 합성수지의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반면, 합성고무의 내수는 신발, 고무, 타이어 등 전방부문의 부진 지속으로 정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수출, 수출여건은 보합 내지 다소 호전, 물량과 금액 모두 소폭 증가할 듯**

○ 2004년에 수출은 전세계적인 신증설투자의 부진과 중국에서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여건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 국내 생산증가 대비 국내 수요의 상대적인 호조로 인한 수출여력의 둔화로 인해 물량기준으로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단가는 유가의 안정화전망과 세계 수급여건의 다소간의 호조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003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금액 증가율도 수출물량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생산, 대규모 신·증설 보다는 공정개선, 합리화 투자 지속**

○ 2004년 대규모의 신·증설 투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다만 2003년에 합섬원료(TPA) 부문과 ABS부문에서 이루

<표Ⅱ-9> 2004년 석유화학산업의 여건 분석

	증가(긍정적)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국내경기의 회복	· 합성고무 부문의 정체 지속
수 출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 · 전세계적인 신증설투자의 부진 · 공급물량증가의 둔화와 유가의 안정화로 수출단가 안정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수요(합성수지) 증가율 둔화 · 대중국 수출의존도의 심화로 무역마찰 가능성
생 산	· 2003년도 합섬원료(TPA) 부문과 ABS부문에서의 지속적 신증설 · 합성수지 부문에서 공정개선 (debottlenecking)에 의한 생산능력 증가 · 국제경기의 다소간의 호조로 가동률 상승 가능성	· 전체적인 신증설 투자의 부진 지속
수 입	· 국내경기의 호조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입의존도 미미 · 세계시장에서의 수요대비 공급능력 다소 하락 전망
종 합 평 가	· 내수 :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호전될 전망이지만 실질GDP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을 듯 · 수출 : 수출여건은 보합 내지 다소 호전- 물량과 금액 소폭 상승 · 공급 : 전체적인 신증설투자의 부진 속에 가동률 다소 상승할 전망	

어진 지속적인 신증설 투자의 여파와 세계경기의 상대적 호조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생산은 4.3% 증가할 전망임.

– 석유화학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규모의 신규 설비투자가

<표Ⅱ-10> 석유화학산업 전망

단위 : 천톤,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10,317 (8.5)	5,088 (0.2)	5,125 (-2.1)	10,213 (-1.0)	10,723 (5.0)
수 출	7,145 (4.1)	3,630 (3.0)	4,006 (10.7)	7,636 (6.9)	7,865 (3.0)
생 산	16,092 (5.8)	8,119 (2.7)	8,536 (4.3)	16,655 (3.5)	17,371 (4.3)
수 입	1,370 (18.6)	599 (-14.4)	595 (-11.1)	1,194 (-12.8)	1,217 (2.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은 산업연구원.
주 : 1)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3대 유도품 기준.
2) 생산은 출하기준임.
3) 2003년은 9월까지의 실적치에 근거한 전망임.
4)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감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양적 투자보다는 공정개선, 합리화 투자, 정보화 투자 등 질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6. 섬유산업

(1) 2003년 동향

○ 2003년 국내 섬유산업의 내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카드발급 및 사용 규제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국내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둔화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 2003년 수출은 중국, 베트남 및 EU 등지로의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동 및 아시아 개도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인해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비 10.8%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속에 미국의 3단계 수입쿼터 폐지(2002년) 이후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이 미국시장 잠식을 가속화한데 기인함.

  · 우리 제품은 중국 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이 많은데,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을 더욱 잠식하였음.

  · 특히, 소재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직물, 편직물 및 면직물은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가 제품인 견직물, 모직물, 모사 등은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생산은 미국의 이라크침공, 세계경기 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향후 국내경기 불안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까지 둔화되면서 물량기준으로 1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1~8월 기간 동안의 업종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의류가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함께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물량기준으로 전년 동기비 19.5%나 감소하였음.

- 직물직조업의 생산도 후발 개도국들의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우리 시장 잠식 및 국내 의류생산 감소에 따른 직물수요 감소로 17.4% 줄어들었음.

- 편조업의 생산은 편직물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니트의류의 수출 감소로 2.3%의 낮은 증가에 그쳤음.

- 제사 및 방적업의 생산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물생산 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로 13.7% 감소하였음.

- 화학섬유 생산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둔화로 0.7% 줄었음.

○ 2002년에 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수입은 2003년 들어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4.1%의 낮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1~9월 기간 동안 분야별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우선 직물 수입이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4.5% 감소하였음.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각각 26.7% 및 7.4% 늘어났음.

〈표Ⅱ-11〉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증가율 현황

단위 : %

	섬유 및 섬유제품						의 류	화학섬유
	제사방적	직물직조	편 조	염색가공	기타섬유			
2001	-2.4	-18.0	-7.9	-11.6	-2.8	-10.0	-6.8	-7.9
2002	-0.5	-11.2	-6.3	-5.5	-4.9	-6.0	7.4	7.1
2003.1~8	-13.7	-17.4	-2.3	-15.2	-4.7	-11.9	-19.5	-0.7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통계」, 2003. 11.

- 지난해에 39.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의류수입이 2003년에는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월 기간 동안에 17.5% 증가하는 데 그쳤음.

  · 특히, 의류 전체 수입의 77% 정도를 점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사스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47.1%에서 2003년 1~9월 기간 동안에 19.2%로 크게 하락하였음.

(2) 2004년 전망

○ 2004년 섬유산업의 수출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도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류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및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대체 등으로 2004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임.

- 직물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생산능력 향상 등에 따른 수입 대체 등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섬유사는 천연섬유사의 지속적인 수출 감소와는 달리, 스판덱스사를 중심으로 한 화섬장섬유사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2004년 섬유산업은 국내 경기 상승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섬유사 기준으로 2.7% 증가할 전망임.

- 하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증가의 한계로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 생산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섬유사가 스판덱스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의류 생산은 후발 개도국들과의 경쟁력 약화 속에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확대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및 역수입 증가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직물 생산도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생산 감소에 따른 직물수요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Ⅱ-12〉 섬유산업의 여건 변화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업체들의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전략 강화 · 국내경기 회복	·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증가 한계
수 출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	· 중국 등 개도국들의 생산능력 확장 · 선진국과 개도국들 모두 수입규제 강화 · 원화 환율 하락
생 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으로 수출증가 기대 · 내수 회복	· 국내투자 부진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에 따른 역수입 증가
수 입	· 국내 경기 회복 ·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역수입 증가 · 원화 환율 하락	
종합평가	· 내수 및 수출 증가로 섬유경기가 회복	

〈표Ⅱ-13〉 섬유산업 전망

단위 : 천톤,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1,183 (-23.8)	538 (-10.0)	557 (-4.5)	1,096 (-7.4)	1,134 (3.5)
수 출	15,674 (-2.5)	7,300 (-2.1)	7,988 (-2.8)	15,288 (-2.5)	15,701 (2.7)
생 산	2,716 (-10.7)	1,317 (-2.5)	1,336 (-2.1)	2,654 (-2.3)	2,720 (2.5)
수 입	5,688 (17.0)	2,661 (9.1)	3,262 (0.4)	5,923 (4.1)	6.812 (15.0)

주 : 1) 생산과 내수는 섬유사 기준(천톤)이고, 수출과 수입은 섬유산업 전체 기준(백만 달러)임.
2)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 국내 업체들의 해외생산분의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백화점, 일부 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고가 브랜드 제품 판매전략으로 인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로부터 고가·차별화 제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7. 가전산업

(1) 2003년 동향

○ 2003년 가전산업은 국내경기 침체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업체들이 수출확대에 주력하면서 수출호조가 성장을 견인하였음.

○ 신용한도 축소로 주요 소비층인 20~30대의 소비감소, 카드채 부담이 많은 자영업체의 소비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극심한 소비침체로 인해 2003년 내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월드컵 특수에 힘입은 대폭적인 수요확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락의 영향도 적지 않음.

- 상반기 내수 감소율은 전년 동기비 41%에 달했으나, 하반기 들어 금리인하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내수진작과 업계의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감소율이 20%

로 낮아짐.

○ 수출은 사스 진정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 지속 증가와 디지털 TV의 유럽 수출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현재 대EU 43%, 대중국 28%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함.

- 이에 따라 가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EU가 23%로 21%인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 중국도 전년 7.7%에서 2003년 8.5%로 비중이 높아짐.

- 대미수출은 이라크전 이후 미국경기가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되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9월 현재 3.1% 감소함.

○ 지난해 월드컵 특수효과로 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생산은 2003년에 기대 이상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의 폭이 워낙 커 13% 감소할 전망임.

- 생산대비 수출비중은 통상 60% 수준이었으나, 2003년은 내수침체를 수출확대로 극복하려는 업체들의 노력 결과 수출비중이 80%까지 상승하여 수출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수입은 일본산 디지털 TV,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기기와 게임기,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저가 음향기기 및 일본업체의 중국 현지생산 제품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3년 15%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됨.

- 내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이와 같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소비 양극화에 기인함. 즉 고소득층은 고가의 일본산 제품을, 저소득층은 저가의 중국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음.

- 컬러 TV 총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2002년 50.1%에서 2003년 9월 현재 61.2%로 높아짐.

- 비디오카메라 총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2002년 84.4%에서 2003년 9월 현재 73.5%로 줄어들었으나, 중국 현지생산 일본제품의 유입으로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8.3%에서 18.5%로 증가함.

(2) 2004년 전망

○ 2004년 가전산업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내수가 증가할 것이나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탄력이 붙은 수출확대 지속으로 성장하여 갈 전망임.

○ 2004년 국내 가전시장은 특별한 내수 확대 요인이 없는 가운데, 2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디지털기기 가격 하락에 힘입은 디지털 가전의 대체수요 촉진과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 7.8%

의 증가가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03년의 극심한 수요 침체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의 측면도 있으며, 2001년 수준으로의 회복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회사의 급격한 신용조정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2003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일 것임.

- 최근 생활가전시장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빌트인 가전의 경우 옵션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수출은 세계 주요 경기전망기관들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2004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바, 경기회복과 비례해 소비가 늘어나는 가전제품의 수요가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12% 증가하면서 2003년에 이어 계속 가전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우 디지털 TV보급 촉진을 위해 TV에 디지털 튜너 내장을 2007년까지 의무화하는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일체형 디지털 TV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일본이 최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였고, 독일은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적극적 보급정

책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영상기기의 수요 활성화가 기대됨.

- 또한 디지털 가전업체간 시장선점을 위한 제품 다양화 및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기기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이 활성화될 여지도 큼.

-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고 위안화의 달러화 환율고정으로 달러가치 하락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며, 또한 막대한 자국수요에 힘입은 가격인하 등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시장을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는 점은 수출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내수가 회복되고, 디지털 TV 등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출 증가, 백색가전의 수출단가 인상 등 수출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생산은 5.4% 성장세가 예상됨.

- 홈네트워크 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제품과 양문 여닫이식 냉장고나 드럼 세탁기 등의 고가·다기능 프리미엄 제품,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 복합형 생활가전 제품 등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복합형 생활가전 제품 : 청소기+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칫솔 살균기, 공기청정기 + 가습기 등

〈표Ⅱ-14〉 가전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증가(긍정적)요인	감소(부정적)요인
내 수	·디지털가전 가격하락 경쟁 가속 ·콤보형 복합제품 수요 창출	·높은 가계부채수준으로 구매력둔화 ·지상파 디지털 방송 논란 지속 ·빌트인 가전의 옵션제 시행
수 출	·유럽의 디지털방송 가입 증가로 관련제품 수요 확대 ·미국 일체형 디지털 TV수요 증가 ·중국 경제성장 지속으로 가전 수요 확대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가격경쟁력 약화 ·대다수 품목이 공급과잉 상태 ·대중국과의 경쟁력 격차 급속 축소
생 산	·디지털 가전 해외수요 확대로 수출지속 증가	·해외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분 감소
수 입	·일본산 디지털 기기 수요 증가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 수요 증가	·중국산 제품의 낮은 품질과 미흡한 A/S
종 합 평 가	·전반적으로 수출이 성장을 견인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 ·미국 등 선진국 수요 회복이 성장의 관건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표Ⅱ-15〉 가전산업 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12,302 (12.4)	4,034 (-41.2)	4,358 (-19.9)	8,392 (-31.8)	9,050 (7.8)
수 출	10,760 (11.0)	5,981 (10.4)	6,508 (21.8)	12,489 (16.1)	13,950 (11.7)
생 산	22,004 (8.8)	9,214 (-22.2)	9,910 (-2.4)	19,124 (-13.1)	20,305 (6.2)
수 입	3,008 (19.9)	1,649 (14.4)	1,821 (16.2)	3,470 (15.4)	3,900 (12.4)

자료 : 생산·내수통계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수출입 통계는 KOTIS.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생산과 내수는 원화, 수출·입은 달러화 기준.

○ 수입은 일본산 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증가로 12.4% 증가할 전망임.

- 최근 환율하락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중국산 소형 가전제품, 일본산 디지털 제품, 관련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8. 컴퓨터산업

(1) 2003년 동향

□ 노트북 컴퓨터 및 고성능 주변기기가 내수 증가를 선도

○ 2003년 내수판매는 전년 대비 35.8%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기업 제품 중심의 내수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데스크톱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컴퓨팅 추세의 확산에 힘입은 노트북 PC수요의 지속적 증가(노트북의 고성능화 및 가격인하, 재구매 PC 수요 흡수 등의 호재 지속)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울러 대형 TFT-LCD, DVD-ROM 드라이브 등 고성능·고가의 주변기기에 대한 신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내수 증가에 기여함.

- 반면 데스크톱 PC는 2003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해서 전년에 비해 최소 10% 이상 감소할 전망임.

  · 데스크톱의 수요둔화는 시장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태인 데다 대체재 관계인 노트북 PC에 대한 개인 및 기업 모두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PC에서는 기업용 PC보다 개인용 PC에 의해 내수가 유지되고 있어서 전체의 판매량이 2002년보다 위축될 전망임.

□ **중국 등 중화권에 대한 수출증가세 지속**

○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IT투자 감소,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수출환경이 양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 및 해외생산거점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2003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업체의 현지 PC시설 확충에 따른 부품공급이 크게 작용한 때문임.

- 반면, 2002년에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수출은 IT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003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밖에 일본, 대만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도 감소함.

○ 제품별로는 전체수출의 약 10%를 점하는 노트북의 수출이 북미, 유럽, 중국 등 지역별로 고루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2년 전체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8.2%에서 2003년에는 10%로 상승할 전망임.

- 또한 컴퓨터산업 전체수출의 약 35%를 차지하여 최대 단일 수출품목인 모니터는 중국, 홍콩,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HDD 역시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여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생산 대폭증가**

○ 2003년 컴퓨터산업의 생산액은 세계적인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수가 하반기에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대비 29.2% 증가하여 2002년에 비해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섬.

- 생산은 5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에는 월간기준 사상 최고수준인 2조 8,500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3.5%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졌음.

○ 데스크톱 PC의 내수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체생산이 증가한 것은 노트북 PC, 모니터, 기타 부품 및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PC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PC시장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함.

(2) 2004년 전망

□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제품 및 교체수요가 내수확대 주도**

○ 2004년 컴퓨터산업의 내수는 크게 교체수요의 발생, 모바일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지연되었던 PC의 교체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모바일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가 2003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임.

  · 펜티엄4 3.0GHz 이상의 고성능 CPU가 점차 저변을 넓혀가면서 업체간 경쟁 확대로 가격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PC 교체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틈새시장인 게임용 고성능 컴퓨터의 수요, 모바일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스마트폰의 수요도 기업들의 마케팅 강화와 젊은 계층의 호응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 밖에 일부 외산기업 및 국내 기업의 홈쇼핑을 통한 PC 판매 강화, 그동안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정보화 투자 회복 등은 모두 내수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

○ 세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IT분야의 회복이 완연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임.

- 세계 IT시장의 수요는 특히 무선통신, 리눅스, 데이터 개발, 실시간 정보분석 등 컴퓨터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액정모니터와 노트북, 저장장치 및 부품 등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의 수출이 전년에 이어 2003년에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국별로 보면, 선진국 시장은 물론이고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홍콩 등 컴퓨터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중화경제권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임.

- 북미지역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수출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력시장의 하나였던 대만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양국 기업들의 중국내 생산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중국 외에 한국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등에 대한 부품 수출도 현지생산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 국내외 IT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증가 기대

○ 2004년의 국내 컴퓨터산업 생산은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할 전망임.

- 수출이 전년에 이어 액정 모니터, 노트북, 광디스크 드라이브(ODD) 등을 중심으로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내생산을 촉진할 것임.

○ 국내 요인으로는, 전년에 이어 노트북 PC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노트북 외에 모니터, 무선랜 등의 노트북 관련기

〈표Ⅱ-16〉 컴퓨터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노트북 컴퓨터 수요 증가 · 교체수요 본격화 · 홈쇼핑을 통한 판매 확대 지속	· 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보화 부문에 대한 투자회복 지연
수 출	· 선진국의 경기회복 및 기업의 IT투자심리 회복 · 해외생산거점에 대한 수출확대 · 모니터, ODD 등의 경쟁력 제고	· 중국업체와의 수출경쟁 점증 · 신규 OEM, ODM 거래선 확보상의 어려움
생 산	· 세계 IT경기 회복 기대 · 본격적인 PC 교체수요 발생 · 수출증가 지속 · 모바일 제품 선호도 증가	· 해외현지법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분 감소 · 데스크톱PC 수요의 급격 위축
수 입	· 완제품 외산 노트북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 국내기업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종 합 평 가	·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컴퓨터에 대한 신규수요 증가 · 교체수요의 본격화, 기업의 정보화 투자심리 회복 여부가 산업의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Ⅱ-17> 컴퓨터산업 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10,301 (22.4)	5,851 (13.7)	8,137 (57.8)	13,988 (35.8)	16,758 (19.8)
수 출	12,941 (15.1)	6,488 (0.8)	8,413 (29.4)	14,901 (15.1)	18,030 (21.0)
생 산	19,383 (-3.5)	10,350 (7.6)	14,691 (50.4)	25,041 (29.2)	30,425 (21.5)
수 입	5,682 (-4.7)	2,770 (-3.2)	2,804 (-0.5)	5,574 (-1.9)	5,658 (1.5)

자료 : 「전자산업통계」(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및 KOTIS DB.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2) 2003년 상반기는 실적치임.
2) 생산·내수는 원, 수출·수입은 달러 기준임.

기, 그리고 고성능 부품 등이 생산확대를 주도할 전망임.

- 아울러 개인 및 기업 모두의 하드웨어(H/W) 업그레이드 투자수요가 회복되고 PDA, 스마트폰 등 포스트 PC에 대한 수요확대도 생산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9. 통신기기산업

(1) 2003년 동향

○ 2003년 통신기기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동통신과 데이터통신 분야의 확산과 관련된 신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세계시장의 경우 이동통신 관련 기기 수요와 초고속 인터넷 확산에 따른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시장도 cdma2000 1x EV/DO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장비 및 단말기의 수요확대 등으로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내수시장의 경우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이동전화기가 일정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3G 관련 투자가 전체적으로 부진하여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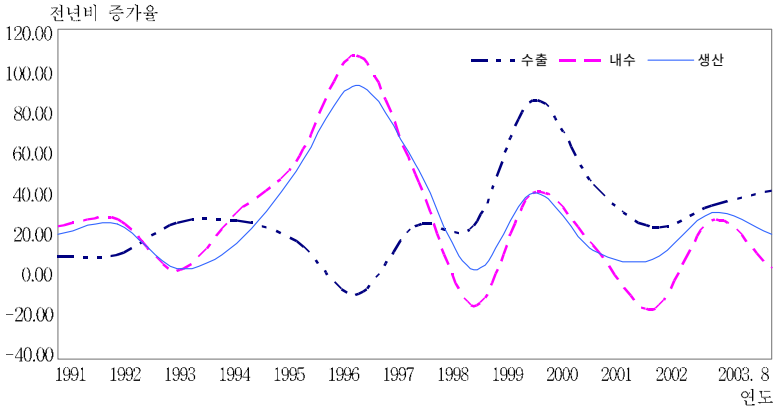
- 특히 2002년 68%에 달하는 이동전화보급률로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컬러폰, 카메라폰 등 신제품의 출시와 통신사업자들의 무선인터넷 확산에 따른 이동전화기 대체수요 발생 등이 그나마 내수시장을 견인하였다고 할 것임.

□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지속적인 수출확대**

○ 수출은 미국과 중국으로의 시장확대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CDMA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 장비 및 단말기의 수요확대, 그리고 EU, 인도, 중동 등 GSM 시장에 대한 수출 호조 등이 작용하여 전년에 이어 37.7%라는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음.

- 초고속인터넷장비의 경우도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웰링크, 기가링크, 다산네트웍스 등 전문업체들이 세

<그림Ⅱ-1> 통신기기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증가율 추이



계시장 확보를 위해 마케팅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웰링크는 중국업체와, 기가링크는 일본업체와 공급계약을 추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서 2003년 우리 나라 통신기기시장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성장둔화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3%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이동전화기를 비롯한 무선통신기기의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통신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품의 고급화 등으로 내수수요가 일정 증가율을 유지한 결과라고 하겠음.

○ 한편,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의 경우도 당초

예상되던 3G 관련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첨단통신장비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 7.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03년도 연간기준으로 통신기기는 공급측면에서 생산 22.3%, 수입 7.4%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측면에서는 수출 37.7%, 내수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 2004년 전망

○ 2004년 미국, EU 등 세계경제와 한동안 부진했던 IT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신기기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동전화기 시장의 경우 제품별로는 컬러폰, 카메라폰 등으로 수요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도 수요확산이 전개되어,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통신장비 시장의 경우는 3G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또 이를 대체할 신규 서비스 출현 역시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환경변화에의 대응도 필요**

○ 내수시장의 경우 카메라폰, 컬러폰 등 제품고도화에 따른 대체수요 확산과 번호이동성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가입전

환에 따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늘어난 9.2% 정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통신장비의 경우는 출연금 상당규모를 IT 및 통신설비 투자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이 있었지만, 3G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제한적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 투자계획도 축소되고 있어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임.

○ 수출은 2004년에도 국내 통신기기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주력시장인 미국이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이동전화기에 대한 시장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전년에 이어 2004년에도 25%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세계 최대 이동전화기업체인 노키아의 중국에 적극적인 시장확보 전략과 최대 생산국인 중국업체들의 시장전략에 국내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2004년 국내 통신기기시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확대와 번호이동성 도입 등 국내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6.2%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선진업체와의 경쟁격화와 장비업체의 수요처인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감소로 인한 내수부진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의 경우 2003년 하반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이동전화기에 소요되는 핵심부품과 첨단통신장비의 수입수요가 늘어나 전년 대비 12.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04년도 연간기준으로 통신기기는 공급측면에서 생산 16.2%, 수입 12.2%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측면에서는 수출 25.4%, 내수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Ⅱ-18> 2004년 통신기기산업의 여건 분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컬러폰, 카메라폰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확대 ·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대체수요 예상	· 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규수요 감소 ·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
수 출	· 이동전화기에 대한 국내업체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 이동전화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전망	· IMT-2000 서비스 지연 · 이동전화보급률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 둔화
생 산	· 지속적인 수출수요 예상	·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 · 주요 수출시장의 경쟁격하
종 합 평 가	·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지만, 이동전화기에 대한 국내업체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표Ⅱ-19> 통신기기산업 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19,466 (27.0)	9,928 (7.1)	10,500 (3.0)	20,428 (5.0)	22,300 (9.2)
수 출	14,232 (34.3)	8,394 (39.6)	11,200 (36.3)	19,594 (37.7)	24,570 (25.4)
생 산	32,134 (31.3)	17,697 (21.2)	21,600 (23.2)	39,297 (22.3)	45,673 (16.2)
수 입	3,079 (-5.5)	1,436 (-4.0)	1,870 (18.1)	3,306 (7.4)	3,710 (12.2)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TIS 무역통계, 산업연구원.
주 : 1) 생산 및 내수는 원화, 수출입은 달러화 기준.
2)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10. 반도체산업

(1) 2003년 동향

□ 국제정세 급변으로 반도체경기의 부침 심화

○ 2003년 상반기의 반도체 경기는 지속적인 수요부진 상태에서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음.

– 더욱이 이라크전쟁이 종결되자마자 사스의 감염확대로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국면을 맞이한 상태였음.

○ 또한 반도체산업에서는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제소로 잠재고객의 이탈과 수출을 위축시켰으며, 더욱이 D램의 수요처인 PC업체는 가격인하전략으로 D램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을 가중시켰음.

○ 이처럼 반도체경기는 2003년 상반기까지 가장 길고 가장 심각한 침체와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놓여있었음.

□ **하반기의 경기회복 본격 시작된 듯**

○ 하반기 들어 반도체산업의 계절적 수요증가와 함께 PC, USB저장장치,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 반도체 수요산업의 회복으로 반도체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전반적인 수요를 보면 D램의 수요처인 PC가 회복되고 있으며, 모바일제품의 활황으로 플래시메모리, SRAM 등의 메모리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 비메모리의 경우 휴대폰, LCD모니터, 디지털가전, 디지털카메라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어 반도체의 유효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반도체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의 확실한 회복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어져야 함.

- 하반기의 반도체시장은 본격적으로 수요증가를 견인할만한 확실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됨.

○ 반도체 수출의 경우 2003년에는 메모리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일관생산제품이 호조를 보였고, 비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하는 조립가공무역도 하반기에 크게 늘어났음.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D램, S램, 플래시메모리 등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본격 회복되었고,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수탁무역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반면, 국내 반도체의 무역수지를 보면, 2001년부터 무역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휴대폰용 등 비메모리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임. 특히 비교적 낮은 기술인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등 개별반도체도 약 1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2) 2004년 전망

□ 급격한 성장 기대

○ 2004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완성한 회복 기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되어 진정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IT산업 수요도 약간씩 회복으로 향하고,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응용제품별로 보면 PC를 비롯하여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非PC계열 IT제품의 수요상승으

로 점진적이지만 회복을 촉발시키고 있음. 또한 자동차, USB메모리 스토리지 등과 같은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등장하여 각광받고 있음.

○ 반면, 국내 반도체 응용제품의 수출호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최근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평판TV 등에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이며,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여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모바일제품은 비메모리의 비중이 높아 반도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에도 반도체무역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PC와 휴대폰은 교체 수요에 의존

○ 최근 PC와 휴대전화의 시장은 보급률이 한계에 달해 확실히 신규시장보다 거대한 교체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반도체의 유효수요도 이들 제품의 증대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주요제품의 세계 보급대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TV 10억대, PC 4억 5,000만대, 휴대전화 10억대에 달함. 이들 제품의 평균 라이프 사이클은 통상 TV 9년, PC 4년, 휴대전화 3년 정도임. 즉 교환 수요는 대략 연간 TV 1억대, PC 1억 1,000만대, 휴대전화 3억 3,000만대가 되는 셈임.

○ 2003년에는 이라크전쟁, 사스 등 국제정세가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교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2004년부터는 교체수요 확대가 본격화될 것임.

- 각 제품별 잠재수요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TV는 중국권에서 교환이 시작될 것이며, PC는 Y2K로부터 2003년이 4년째가 되어 교환수요가 발생할 시기이고, 휴대전화는 컬러화면, 카메라부착 기능 등으로 확실히 교환수요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아날로그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침체될 듯**

○ 반도체시장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시장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며, 2000년대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침체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PC산업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모바일 및 정보가전산업이 당분간 본격적으로 시장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가 수요 정체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향후 차세대반도체의 유망시장은 정보가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료시스템 등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정보가전의 경우 디지털TV, 홈시어터, 디지털방송시스템, 네트워크키친시스템, 안전감시시스템 등과 함께

통신분야는 휴대폰, PDA, 화상전화, 무선온라인게임기, 네트워크의료시스템, 무선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90년대 후반에 기업들이 앞다투어 IT산업에 투자한 것은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그 후에는 e-비즈니스에서 낙오될 것을 염려해 투자를 지속했음.

- 그러나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IT는 단지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돼 버렸음. 이는 향후 IT산업이 과거와 같은 성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인 경기주기를 따르게 될 것임을 의미함.

□ **반도체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 반도체산업을 둘러 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임. 우선, 반도체시장을 견인하는 주력시스템이 기존의 PC 위주에서 모바일제품과 디지털가전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반도체도 D램 위주에서 SoC(복합칩)로 급속히 발전될 것임.

○ 기술개발은 미세화를 촉진하여 설계 및 공정기술은 0.13㎛→90nm로 가속화되고, 웨이퍼 규격도 200㎜→300㎜로 진화되고 있음.

○ 메모리사업은 거대화되어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고, 메모리 제품도 플래시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메모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표Ⅱ-20> 반도체산업의 여건 변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수 요	· Y2K대응 구입된 PC의 교체시기 · 휴대폰용 IC 및 이미지센서 급증 · 디지털카메라용 IC 급증 · USB저장용 IC 급증 · LCD모니터용 IC 급증 · 디지털가전의 수요증가	· 일반기업들의 IT부문 투자 지연 · 선진국 경기의 전반적 회복지연 · 중국시장에 편중 의존 · PC의 포화상태로 신규시장보다 교체수요에 의존 · 디지털지상방송의 지연
공 급	· 12인치 웨이퍼 본격가동으로 생산증가 · D램의 256M/1G로 고부가가치화 · 비메모리의 생산확대 · 파운드리, 조립가공분야의 급증 · Mosel Vitelic 등 일부 대만업계의 D램 퇴출	· 300mm 투자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재발우려 · 미국, EU의 상계관세부과로 위축 · 중국의 반도체생산 급증 · 일본업계의 구조조정 완료로 본격 생산개시
종 합 평 가	· 수출의 급격한 신장이 기대되나, 비메모리의 수입 급증으로 4년 연속 무역적자 예상 · 반도체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져올 확실한 수요처의 등장으로 반도체 경기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산업연구원(KIET).

○ 비메모리업계는 부가가치 체인별 분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기존의 일관생산체제에서 Chipless 및 Fabless 비즈니스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고속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뒷받침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반도체 경쟁국들은 더욱 신속한 성장기반을 재정비하게 될 것임. 이미 미국은 메모리분야를

<표Ⅱ-21> 반도체산업 전망

단위 : %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내 수 (십억원)	31,370 (21.3)	18,948 (16.8)	20,396 (31.5)	39,344 (25.4)	46,780 (18.9)
수 출 (백만 달러)	16,631 (16.6)	8,259 (6.4)	12,051 (35.8)	20,310 (22.1)	25,230 (24.2)
생 산 (십억원)	30,673 (25.3)	16,920 (4.3)	19,910 (37.8)	36,830 (20.1)	44,840 (21.7)
수 입 (백만 달러)	17,476 (12.4)	9,955 (28.5)	12,465 (28.1)	22,420 (28.3)	26,970 (20.3)

자료 : KAIT(생산), KOTIS(수출입), KIET(전망).
주 :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재무장하고, 비메모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은 메모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스템 IC사업 통합 및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정부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유럽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대만은 끈질긴 D램사업의 도전과 함께 중국 본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생산기지화를 확립하고 국내외업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Issue Paper 2003-147

2003 · 2004년 경제전망 –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

發行處 : 産業硏究院(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凉里洞 206-9)
發行人 : 韓 悳 洙
登錄 : 1983年 7月 7日 第6-0001號/電話 : 3299-3114
印刷 : 2003年 11月 26日/發行 : 2003年 11月 28日
印刷處 : 邦 文 社

ISBN 89-90789-13-3 購讀問議 : 편집·보급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및 譯載를 禁함.
普及價 6,000원